

# 한국 YWCA

2021년 5·6월호  
MAY · JUN Vol.572

## 1만원으로 미래를 키우다 YWCA 1922 장학금

100주년을 앞둔 YWCA가 청소년을 위한 응원을 시작합니다  
1년에 한번 1만원만 내면 Y-틴, 대학·청년Y 리더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1년에 1만원씩 후원

**후원계좌**  
농협 301-1922-0000-31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장학금 지급**  
Y-틴, 대학·청년Y 임원활동 장학금

**문의**  
전화 02-774-9702(장학위원회)

**Y-틴, 대학·청년Y  
우리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YWCA 한국YWCA연합회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8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고양	031.919.4040	(사)서울	02.3705.6000
광명	02.895.1966	서천	041.951.6400
광양	061.762.0012	성남	031.708.2503
광주	062.609.1300	세종	044.865.2432
군산	063.462.4491	속초	033.635.3523
김해	055.332.6000	(사)수원	031.252.5111
남양주	031.577.7762	(사)순천	061.744.799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논산	041.736.7393	(사)안산	031.483.6536
(사)대구	053.652.0070	(사)안양	031.455.2700
(사)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동해	033.531.3007	(사)여수	061.654.216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사)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사)인천	032.424.0524	전주	063.224.5501
제주	064.711.8322	제천	043.645.2580
진주	055.755.3463	진해	055.542.0020
창원	055.283.9488	천안	041.575.0961
(사)청주	043.265.3700	춘천	033.254.4878
충주	043.848.3240	통영	055.646.2547
평택	031.945.5998	포항	054.274.4444
하남	031.793.7771		

**기후 탈핵생명사회로 나아가는 길**  
정의로운 기후위기 해결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준비하는 질문들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YWCA의 작은 실천  
핵발전은 탄소중립사회 대안일 수 없다

**기후위기와 여성**  
이제는 탈성장을 말할 때다

**시민사회와 선거**  
청년 '남성' 당대표와 성차별주의

**평화**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 전망과 한국의 역할



# YWCA 99주년 회원 선언

한국YWCA는 1922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정의, 평화, 창조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52개 지역에서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99년의 역사를 이어,  
100년을 넘어서까지 희망과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 | 지역 |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지역을 꿈꿉니다.

## | 청년 |

우리는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 | 회원활동가 |

우리는 기도하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활동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글로벌 문제를 시민들의 자치와 참여로 해결하는 '지역운동체'가 되고,  
'청년'들과 함께 사회변혁에 참여하며,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 실천주체인  
'시민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YWCA 99주년 회원 선언 참여자 일동

## 2021.5·6 한국YWCA



### 표지이야기

P4G 그린워싱을 반대한다! 탈핵 탈석탄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자!  
5월 30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P4G 서울정상 회담의 의제를 반대하고 정의로운 녹색실천을 할 것을 다짐했다.

### 2021년 7-8월 주요일정

7월 1일	7월 월례기도회
7월 1일	YWCA 탈핵기후행동학교
7월 8일	(사)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
7월 8일	한국YWCA 100주년 준비위원회 출범식
7월 20일	성평등 월간토론회
8월 19-20일	전국 사무총장협의회

### 제57권 제2호 통권 572호

2021년 6월 28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 김은주 구정혜 이주영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제일프린텍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6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다양성과 포용성의 YWCA! | 오영란
- 05 **월례기도회** “청년이여, 의심하라” | 김효진
- 기획 탈핵생명사회로 나아가는 길**
- 06 정의로운 기후위기 해결과 에너지 전환 | 이영경
- 09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준비하는 질문들 | 이유진
- 12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YWCA의 작은 실천 | 이현주
- 13 핵발전은 탄소중립사회 대안일 수 없다 | 한국YWCA 성명서
- 14 **기후위기와 여성** 이제 탈성장을 말할 때다 | 장이정수
- 16 **시민사회와 선거** 청년 '남성' 당대표와 성차별주의 | 권수현
- 18 **평화**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 전망과 한국의 역할 | 정성장
- 20 **청년토크** 청년의 산재 사망 | 대학·청년Y
- 22 **평화와 여성** 남북 여성 교류 30년, 돌아보고 내다보다 | 최수산나
- 24 **YWCA 변화와 혁신2** 창립 100주년 앞둔 YWCA,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직으로 | 박동순
- 26 **로컬프렌들리 이야기1** 우리는 왜 군산으로 갔는가 | 김수진
- 28 **지역과 함께**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 | 편집실
- 30 **이달의 현장①** P4G 그린워싱을 반대하는 기후행동캠페인
- 32 **이달의 현장②** YWCA 탈핵기후행동학교
- 34 **이달의 현장③** YWCA 신입실무활동가·신임이사 교육
- 37 **이달의 현장④**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인도YWCA 지원 모금
- 38 **이달의 현장⑤** 미안마 민주주의를 위한 목요기도회
- 40 **이달의 현장⑥** 2021 여성주의 연합예배
- 43 **연합회 소식**
- 47 **연합회 모금 현황**
- 48 **회원YWCA 소식**

# ‘다양성과 포용성의 YWCA’

오영란

(사)한국YWCA연합회 제1회계



지난 30년간 민간기업과 비영리재단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조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지만 YWCA의 조직 문화는 사뭇 특별하다. 어쩌면 그 특별한 점이 오늘의 YWCA가 있게 한 저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행위원으로서 장학위원회, 인사위원회, 제1회계의 직분을 수행하며 YWCA를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알면 사랑한다고 했던가?” 밖에서는 보이지 않던 상처와 모난 부분에 실망하기도 하였지만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피워낸 힘든 과정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 저마다의 지식과 경험이 다르지만 서로 소통하면 영감을 받고 지혜도 샘 솟는다.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서로 다른 은사, 지혜와 경험으로 헌신하는 신실한 주님 자녀들의 연합체인 한국YWCA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화로 함께 자라며 성장해 왔다.

공동의 목표를 명확히 공유하는 것,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 내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즉각 변경할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 배우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 등이 다양성과 포용성의 좋은 사례다.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고 협업하는 조직이야말로 창의적이고ダイナミック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배제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나 실수, 변화를 두려워하게 된다. Y안에서 만큼은 ‘다양성’의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성’을 극대화하자.

서로 다른 지역적 환경에서도 52개 회원 Y가 화합하여 아름다운 조화로 연대하는 모습이 Y의 특별함이며 Y다운 정체성이다. 법인증인 심사과정에서도 참으로 느낀 바가 크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음)을 알고 연

합회는 현장의 제안과 상황을 귀 기울여 듣고 지역운동성과 운영 현실에 맞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자.

우리는 영리기업처럼 소수의 주도적인 사람들이 차단된 정보와 파워게임으로 이루어낸 효율적인 성과를 좇아서는 안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통해 성과를 얻어내길 바라시는 기업의 사장과 같은 분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길 바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이시다. 약자와 소수의 어떠한 의견도 배제하지 않고 그 속내를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숙의를 거치자. 효율적이지도 신속하지도 않은 과정이라 하여도 할 수 없다. 더디고 미숙하지만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이 있었기에 Y의 역사는 참으로 특별하다. 영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신의를 지키고 포용하고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지켜보실까? 비록 그 과정에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에 아버지께서 더 깊이 관여하시고 도와 주심을 믿는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을 증명하듯, 99년간 YWCA는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가며 더디지만 함께 여기까지 왔다. 중요한 안전일수록 더 충분한 검토와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고, 신속보다는 숙의,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욱 중요함을 잘 알기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실천하자. 앞으로의 갈 길도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고 집단 지성으로 함께 성장할 것임을 믿는다. 기독교인 여성단체로서 정의, 평화, 생명의 세상을 이루어 갈 YWCA의 또 다른 100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 “청년이여, 의심하라”

김효진

영등포 신도교회 목사



| 본문 말씀: 민수기 27장 1절 ~ 11절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37장입니다. 어느 날, 므낫세 지파 사람 슬로브핫의 딸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12 지파의 지도자, 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슬로브핫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아버지의 땅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이름 없는 땅이 되는 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가 그 땅을,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아 그 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세상을, 자신들이 나고 자란 문화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가? 나는 지금 슬로브핫의 딸로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가 이 땅에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가? 이 의심이 슬로브핫의 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여 단 한 번도 의심해 보지 못했던 사회와 문화를 의심하자 그 전에는 보지 못하던 의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는 침묵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권력자였던 모세와 지파의 지도자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문화와 자신이 속한 세계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질문하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의 외침이 없었다

면, 세상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의 이 여성들의 의심과 질문 그리고 외침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 옛날 이스라엘의 시대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이나 제도로 가부장제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문화와 전통,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가부장제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인 우리 역시 가부장적인 문화와 전통 또, 인식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남녀평등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고 이상으로 배웠지만, 현실사회에서는 남녀 불평등, 가부장적 문화, 유리천장 등을 경험합니다. 게다가 몇몇은 현실의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 갇혀 성장하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가부장적 문화를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의심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속지 마세요.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옛날 슬로브핫의 딸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의 질문에 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질문에 답하실 것입니다.

외치는 자가 없다면, 세상은 여전히, 계속 당연한 것들에 속아 잠을 잘 것입니다. 또한 당연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의심하지 않는다면, 질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이 외침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청년으로써 해야 할 시대에 대한 책임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 기후위기 해결과 에너지전환은 정의로워야 한다

##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연합회 탈핵기후생명운동TF 전문위원

### 기후위기와 에너지의 관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명제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의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매우 당연한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의 전환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만큼 시급하기도 하다. IPC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분야에서만 전체 온실가스의 1/4이 발생한다. 산업과 교통,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합하면 에너지 분야에서만 전체 온실가스의 3/4에 달하는 양이 발생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한국은 탄소다배출 산업이 많기 때문에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 중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7%나 된다. 석탄과 가스를 이용한 발전 분야를 비롯하여 제철이나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등이 그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에너지전환을 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재화의 생산과 소비, 그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후위기 해결과 에너지전환은 시스템의 전환

기후위기 해결과 에너지전환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의 생활을 먼저 돌아보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외출하기 전 옷을 고르면서 입을 옷이 없다고 고민하고, 점심을 먹은 후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서 마신다. 우리는 언제인가부터 전기에너지에 너무나 익숙해졌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잘 사는 모습으로 여긴다. 이 이면에는 석

유와 석탄을 사용해 값싼 전기와 상품을 생산하고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산업이 있다.

영국의 환경운동단체인 '멸종저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라"가 아니라 "체제를 바꿔라"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윤을 높이려는 방식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이야기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찬미받으소서>에서도 '이윤 최대화의 원리'에만 기초하는 체제야말로 사회적 불평등과 우리 공동의 집인 자연을 파괴하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처럼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가, 혹은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 성장은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 관련 법안이 '녹색성장'이나 '탄소중립'이나를 대척점으로 하여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2021년 6월 현재 국회에 상정된 기후위기 관련 법안은 민주당의 '탈탄소 이행법안', 정의당의 '기후정의법안', 그리고 국민의힘의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안' 등 7개나 되지만, 기후위기의 불평등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정의의 관점 등 주요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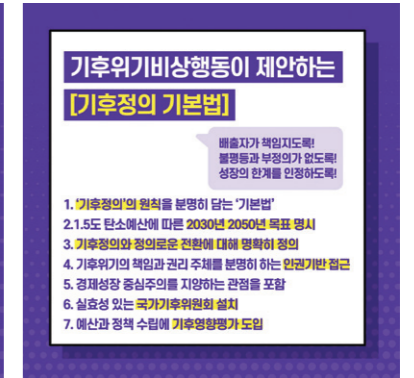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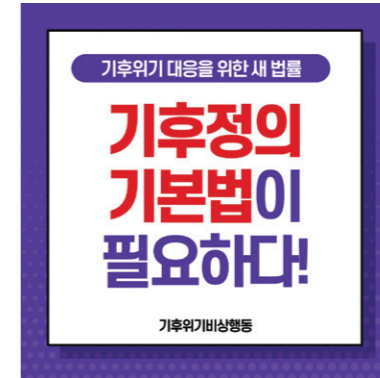
이에 대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2월부터 '기후정의의 법'을 제안하고 몇 가지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할 것 ▲기후정책이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부합할 것 ▲경제성장 중심주의를 배격하고 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을 것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할 것 ▲탄소다배출 산업의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에너지산업의 공공적 전환을 추진할 것 ▲기후위기 대응은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이다.

### '전기화' 되면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는가

최근 수송 분야에서 화석연료의 직접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를 도입하는 정책이 매우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전기화가 모두 친환경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전기차는 운행 중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배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차체가 생산되고, 충전하는 전기가 생산되고,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 등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전기로 가는 자가용을 늘리는 것보다 공공교통을 늘려 전체 차량의 수와 운행 거리를 줄이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도 전기차로 바꾸라는 메시지 속에는 그 고민이 없다. 전기차가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면 차의 생산과 전기의 생산 과정에서 먼저 탄소중립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전 부문의 탄소중립 시점을 요구한 것 또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IEA는 지난 5월 18일 발표한 특별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OECD 회원국의 경우 2035년까지를 시한으로 제시했다. 발전 분야는 에너지산업이지만,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의미에서 다른 경제 분야보다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 발전 분야의 탄소중립은 전세계 공통의 핵심 과제이고, 어떤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 에너지전환에서 지켜야 할 과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에너지전환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하는 것은 바로 '수요량'을 줄이는 것이다. 소비 감축은 석탄 발전이나 공항 건설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중단, 산업공정의 전환, 에너지 효율화, 건축물 규제 등 정부와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요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P4G 홍보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들의 실천만을 강조한다면, 거대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다. 강요된 소비를 위해 더 많이 생산하는 시스템을 바꾸고,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에서 생산을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분산형 시스템이 가능하며 대량 생산과 장거리 송전에 따른 지역 피해와 갈등을 줄이고 책임 있는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재생에너지가 또 다른 생태 파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인간들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숲과 갯벌에 사는 수많은 생명이 자신들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소중한 탄소 흡수원인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환의 과정에 노동자와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전환, 어렵지만 이루어야 하는 과제다. 또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공공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의 책임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이윤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에너지는 이미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고, 시장은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힘들다. 에너지공공성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동체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기후위기를 핵에너지로 막을 수는 없다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그 감축 계획으로는 오로지 핵에너지를 내세웠다. 그 다음 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발언도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 부활을 골자로 했다.

소형원자로(SMR)는 기술적으로 완성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제성 수용성 모두 불확실하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기는커녕 그때까지 상용화할 수 있을지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핵융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거의 국민사기극이라 할 만 하다. 핵융합 에너지를 상용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거의 불가능하다. 송 대표의 말처럼 설사 2050년 상용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얼마 전 발간된 책, <빌 게이츠: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빌 게이츠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과 혁신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강조한다. 문제는 여기에 핵에너지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빌 게이츠는 2008년에 이미 '테라파워'라는 차세대 원자로 개

발 회사를 설립하면서 핵발전 옹호론자의 대표주자가 되었다. 그가 말하는 기후위기 해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 해볼 만하다.

핵에너지는 방사능의 위험과 해결할 수 없는 핵쓰레기, 그리고 자연재해와 인재에 대한 불안함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혹시 모를 사고는 수많은 생명과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핵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함께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전력시스템의 기술면에서 충돌할 뿐 아니라 핵에너지 개발에 퍼붓는 막대한 예산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왜 핵에너지를 '기후위기에 대한 후회 막심한 해법'이라 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이미 정부는 이 불안한 핵에너지와 이별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다. 다시금 그 신호를 부여잡아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 - 탄소중립

#### 탈핵 탈석탄 사회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합의해야

기후위기 해결은 비단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기후위기 해결은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서로 연결된 모든 생명들과의 공존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탈석탄과 탈핵은 함께 이루어야 하는 과제다. 성장이 아닌 공존의 가치로 탈핵탈석탄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탄소중립이든 탈핵이든 사회의 전환을 위해서는 선언하고 명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담은 법안이 논의 중이다.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해법과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원칙이 함께 합의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싸워나가야 한다. 더불어 온실가스 발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직시하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말해야 한다. 시민들의 실천에 앞서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단호한 정책이 있어야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다.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포장하지 말고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하고 행동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준비하는 질문들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연합회 탈핵기후생명TF 전문위원

### 지구 평균기온 1.2도씨

#### 상승 마지노선까지 0.3도밖에 남지 않아

1.5도.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약체(IPCC)는 2018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1년 4월 19일,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기온이 역대 가장 더운 3개년 중 한 해에 속했으며,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2도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제 지구 평균기온 상승 마지노선까지 0.3도 밖에 남지 않았다.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 흔히들 '다음 세대', '우리 아들·딸', '자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후위기는 '다음'이 아니라 '당장' 지구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염, 가뭄, 한파, 해수면 상승, 슈퍼태풍은 이미 수천만 명의 기후난민을 만들고 있다.

IPCC는 인류가 파국을 피하려면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배출량을 최대한으로 줄인 상태에서 그나마 배출한 것은 흡수해 '0'로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인류는 30년 이내에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 엄청난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내야 할까? 탄소중립을 위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질문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려면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같이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풀어나가는 첫 단계가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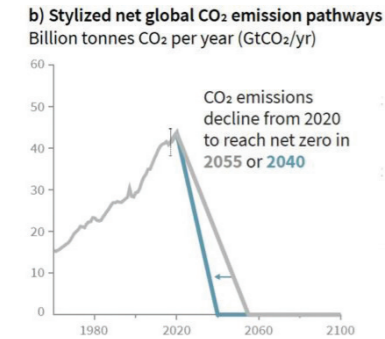
### 2050년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

대기 중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로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30년 이내에 석유, 석탄, 가스 같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1차 에너지의 80%를 차지하는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인데, 엄두가 안 나는 일인 것은 맞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탄소 중립이 가능한 일인가를 질문한다.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가능한 일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탄소중립을 포기한다는 것은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파국을 선택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30년 이내에 아니면 더 빠르게 탄소중립에 도달하도록 행동하는 일이다. 기후위기의 속도보다 인간의 대응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

###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동시에 가능한가?

지구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려면 인류가 대기 중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의 한도 내에서 살아야 한다. 2018년도에 추산했을 때 그 양은 420기가 톤이다. 우리는 해마다 42기가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2021년 현재 탄소예산은 6년 6개월 정도가 남아있다. 탄소예산 자체가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인간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정한다. 현재 지구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에너지 소비, 상품 생산과 소비, 폐기 전 과정은 적정 수준을 넘어서 지구의 수용 용량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성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맥락이 맞지 않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IPCC <1.5도 특별보고서> 그래프  
"1.5°C 경로에서, 전 지구 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하고, 2050년경에는 net zero에 도달해야 한다."



출처: 환경부(2020.11.19).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어떤 탄소중립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케이트 레이워스는 <도넛경제모델>을 통해 지구생태 용량을 넘지 않으면서 인류의 기초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전 세계 78억 명의 인구가 탄소중립사회를 만들어가면서 물, 식량, 주거, 일자리 등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려면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충격 받을 공동체나 노동자, 시민들을 보호하면서 세계, 각 국가,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탈탄소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 사회가 가능하려면 과도하게 많은 것을 가진 국가, 기업, 개인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재분배와 안전망 구축이 탄소중립 사회에서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불평등과 빈곤, 실업 문제를 그대로 두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사회는 기후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살만한 사회,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나라들은 무엇을 하나?

기후위기가 인류의 실재적인 위협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제사회의 대응도 빨라졌다. 무엇보다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리고 있다. 현재 파리협정에 따른 주요국가들의 감축 목표로는 달성에 성공한다 해도 1.5

도에서 막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감축을,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발표했다. 영국은 심지어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을 약속했고, 독일은 2030년까지 65%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2045년으로 앞당기는 결정을 했다. 2021년부터 2030년의 목표를 높이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한국은 2030년 감축 목표를 얼마나 높일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를 줄이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의 감축 목표 수준으로는 지구 평균기온은 3~4도 가까이 오르게 된다.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어떻게 시작하나?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이 넘는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2050년까지 7억 톤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일 것이다.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의사결정 거버넌스로 올해 2050탄소중립 로드맵,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환경부는 7월경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나리오가 나오면 시민들과도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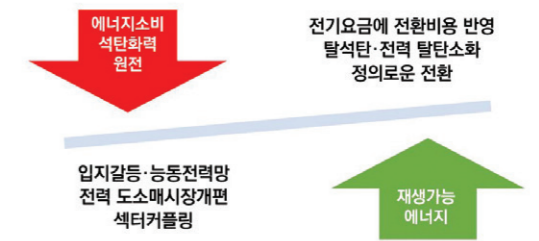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력, 산업, 건물, 수송, 농업, 폐기물, 산림 흡수원 전반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담길 것이다. 우리는 석탄발전소 60여 기에서 호주, 러시아,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석탄을 1년에 남산 체적만큼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2,437만대(2020.12월)로 인구 2.1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유소는 1만 1,331곳이다. 국토 전역에 1,225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산업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한다. 소는 364만5천 마리를 키운다. 탄소중립사회를 만들려면 앞으로 30년 안에 석탄발전소, 내연기관 차량, 주유소 같은 화석연료 기반 시설은 완전히 사라지고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환해야 하며, 소사육두수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큰 제재는 없었다. 하지만 탄소중립이 최우선 목표가 되는 사회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을 규제하거나 온실가스 배출 행위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가 등장하고 있다. EU가 탄소국경조정과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표시제를 도입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EU는 수입되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2024년부터 EU로 수입되는 배터리에 대해 탄소발자국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상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발자국(LifeCycle CO<sub>2</sub>)을 측정할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며,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

2020~2030년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최소한 40%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표대로라면 2017년 배출량 7억 974만 톤에서 2억 8390만 톤을 줄여야 하는 양이다. 다음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소중립 대안으로 원전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

2030 NDC 강화에 따른 에너지부문의 과제




고, 송영길 대표가 제시한 대안에는 핵융합도 있었다. 당장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단을 찾아야 하는데, 2050년에 가서야 상용화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거대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얼마나 단편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2021~2030년 사이에 감축 수단으로 원전, 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탄소포집저장기술(CCS)이 자리할 공간은 없다는 점이다.

에너지 부문만 보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탈석탄, 수요관리, 효율향상, 재생가능에너지, 산업구조전환이 핵심이다. 9년 안에 전력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를 모두 멈추려면 강력한 전력 수요관리와 효율개선, 전기요금 제도 개편,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영국은 2010년만 하더라도 30%에 달하던 석탄발전 비중을 2021년 현재 2%대로 줄였다. 2024년에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할 예정이며, 석탄이 빠진 자리를 해상풍력이 채웠다. 독일은 1995년 1차 에너지소비량 14,269PJ(페타줄)을 2020년 11,784PJ(페타줄)로 줄였다. 독일의 전기요금은 우리보다 3배 정도 비싸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인구 8,800만의 제조업 국가 독일의 전력소비량과 한국의 전력소비량이 비슷한 수준이다. 독일은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에너지효율 산업이 성장했고, 전체 전력의 4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했다.

그래서 시민들은, YWCA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하고,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고, 육식을 줄이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이 넘는다. 개인의 실천을 넘어 정부의 경제, 사회, 산업, 에너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일이다. 어쩌면 현재 시민들과 YWCA 활동가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는데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며, 우리가 어떤 강도와 자세로 경제와 사회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감이 잡혀야 정부와 기업, 사회 모두에게 긴급한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동료들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자. 다음 단계는 우리가 만든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나선 정치인들에게 던지는 일이다.

현재 시민들과 YWCA 활동가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는데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며, 우리가 어떤 강도와 자세로 경제와 사회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기업, 사회 모두에게 긴급한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 

## 탄소중립을 향한 청주YWCA의 작은 실천

| 이현주 (사)청주YWCA 팀장

청주YWCA는 2021년 기후위기시대에 탄소중립을 향한 작은 실천들을 하나가기로 회원들과 약속을 하였다. 지금 시기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의 시간과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삶의 습관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청주YWCA는 네 가지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생활습관,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소비문화를 이루기 위해 지난 4월13일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열어 현재 운영중이다. 매장에는 생분해가 가능한 제품들, 수질정화에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한 제품들이 판매되며, 플라스틱 포장제품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가지고 온 용기에 넣어가는 방식으로 판매한다.


둘째, 월1회 ‘고기 없는 날’, ‘하루채식’ 캠페인을 진행한다. 매주 첫째주 수요일 하루채식을 실천하며 덜 먹고 덜 집착하며 남김없이 먹는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나



같이 계획이다.

셋째, 환경119 카카오톡 채널운영을 한다. 환경119는 환경지킴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아리송한 환경문제(분리배출, 재생에너지 관련, 지역의 환경문제 등)에 대한 궁금증을 올려주면 알기 쉽게 정리해서 소개를 할 예정이다.

넷째, 아이스팩&우유팩 재사용운동을 진행한다. 시민들의 아이스팩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본부를 비롯해서 부속시설에 수거함을 설치해 아이스팩을 수집하고, 모아진 팩은 일부러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 하는 지역의 상점들에게 나눔을 진행한다.

청주YWCA는 작은 약속을 실천해 나가면서 생태적 위기를 마주하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고리1호기 영구정지 4주년을 맞이하며 |

## 핵발전은 탄소중립사회 대안일 수 없다

오늘 6월 19일은 40년 된 노후 원전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사회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기존 계획대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4,5,6호기 등이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 예정이며, 고리 1호기 해체는 2023년 5월에야 본격 해체 수순을 밟아 2037년이 되어서야 종료된다는 계획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6월 16일과 17일에 걸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0년 석탄화력감축 비용과 유가 반영의 결과인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둔갑시키는 거짓뉴스를 유포하는 동시에, 안전성 검증 기준에 못 미쳐 운영 허가가 유보된 신한울 1호기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막힌 것으로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 비용이 막대하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는 원전이 치명적인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성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음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산업계가 공고한 연대를 통해 핵발전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탄소중립사회를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에서 40%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제시하면서도, 그 대응책으로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SMR) 개발과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소형모듈원자로는 수십 년 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예비 타당성조사 부적합으로 공식 폐기한 바 있다. 또한, 핵융합 상용화는 28년 뒤 현실이 될 거라는 송대표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성에서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2030 탄소중립의 목표라는 시기성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다. 핵융합과 소형모듈원자로는 기후변화 대응 효과에서 어떤 검증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 기후 선진국들은 탈핵 및 재생에너지 전환 사회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핵산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공식화 이후, 더욱 강고하게 원전의 위험과 피해를 은폐하고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주장하며 핵산업의 부흥을 꾀하고 있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핵 발전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원전의 위험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으며, 핵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해 적절한 에너지원도 아니다.

이에 한국YWCA는 거대 양당의 핵산업과 핵기술에 대한 주장을 규탄하며,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정책과 실천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회원 10만 서명을 통해 고리 1호기 폐쇄를 이루었던 탈핵운동을 이어가며, 탄소중립 사회와 탈핵에너지 전환 사회를 위해 지역 사회와 회원들과 함께 탈핵기후생명을 위한 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국YWCA연합회

2021년 6월 19일

# 이제 탈성장을 말할 때다

**|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이사

시민사회의 불참과 항의 시위 속에서 5월 30일 P4G가 막을 내렸다. P4G 정상회의는 대륙별 12개 중견국들과 국제기구-기업들이 참여하여 2년마다 정상회의를 통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 각국의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하는 회의이다. 30일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다.

## 한국정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자리 아직도 석탄화력발전으로 폐기될 경제회복 집중

그러나 불참을 선언했던 시민사회의 비난처럼 한국정부의 진전된 감축 목표나 계획은 끝내 없었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파국을 맞는다는 사실은 여러 번 강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는 2017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한다는 것이고 최소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정도로 낮은 계획이다. 최소한 40%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관철해야 했음에도 그런 계획은 다시 먼 미래로 미뤄졌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비롯해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커서 에너지 소비 7위에 이른다.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이 전체 40.5%에 달하며 지금도 계속 짓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에너지믹스를 얘기하며 핵융합을 거론하기까지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긴 사

투를 거치고 있음에도 백신을 통한 경제 회복에만 집중하고 있는 암울한 모습이다. 2학기에 정상 등교를 한다는 아이들의 학력이나 사회성은 피폐해져 있을 것이다. 일자리도 관계망도 없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세대 간의 고통과 우울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거기다가, 배달 앱을 통해 하루 270만 건의 배달과 830만 개의 포장쓰레기가 쌓이거나 태워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다시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 코로나 이전, 인간-사회-자연 굴종의 굴레 절대 돌아가선 안 돼

단언컨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서도 안 될 것이다. 코로나 이전은 코로나19를 만들었던 인간과 사회와 자연의 그 어그러진 관계를 말한다. 이집트 파라오의 절대 군주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던 유대인이 광야에서 40여 년을 방황하며 새로운 자유의 땅을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 사회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성장과 굴중에 길들여진 삶에서 자유와 풍요의 삶을 향한 여정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하는 시간 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고 절박하다. 희망적인 것은 전국에서 기후위기를 위기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같은 전국 행동과 지역조직, 종교의 각성,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기후위기 전환 로드맵에 대한 토론과 논의들이 조금씩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채식과 제로웨이스트 등 개인의 실천뿐 아니라 법 개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농업과 교육, 순환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안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 포스트성장사회 탈성장세계 에너지와 자원 사용 줄이고 성장 집착 버리자

지난 6월 19일에 개최되었던 2021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주제는 '포스트성장사회와 페미니즘 돌봄 전환'이었다. 페미니스트 그린뉴딜을 주장하는 수잔 팔루션은 팬데믹과 그 이후의 탈성장세계에서 돌봄과 공유화의 필요성을 말하며 탈성장의 목표를 첫째, 부유한 국가의 에너지와 자원 이용 줄이기, 둘째, 성장에 대한 집착 억제, 셋째 평등한 웰빙을 위한 사회 재편을 말하였다. 이날 여러 섹션에서 기후재난과 페미니스트 정치, 돌봄사회 책임의 재검토, 디지털 시대와 포스트휴먼시대의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여성학에서도 본격적으로 탈성장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 성장은 곧 자연 파괴와 사회불평등 심화 탈성장은 풍요의 다른 사회 상상

유럽의 그린딜이나 미국의 그린뉴딜은 이미 탈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금의 신자유주의경제는 더이상 성장이 불가능하고 성장은 곧 자연의 파괴와 그로 인한 사회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에서 대부분 공적자금을 이용해 자연과 조화로운 일자리와 복지에 대거 투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한히 만들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탄소경제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의식 속에는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실업과 가난과 복지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탈성장은 단지 물질의 축소가 아닌 풍요의 다른 사회를 제안한다. 생산되는 상품의 양과 노동의 확대가 아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경제에 대한 상상력이 바뀔 것을 요구한다. 하루 830만 개의 포장쓰레기가 없어도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며 돌봄노동이 물티슈처럼 취급되지 않고 존중과 감사의 대상이 되고 안식일에 모두가 자신의 창의성을 누리며 각자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공유할 것과 나눌 것이 많은 인간적이고 풍요로운 사회 말이다.

## 인간과 자연이 조화 이루고 공유하고 누리고 나누는 풍요로운 사회

탈성장의 세계는 우리가 매일 고기를 먹지 않아도 건강하고 옷장 가득 패스트패션이 없어도 매력적이며 자동차 대신 자전거와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상상이다. 교육의 목표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사람이라면 그가 난민이든 이주민이든 장애인이든 성소수자든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수가 동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탈성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 각자 떨어진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 더 많이 벌지 않아도 지금 있는 것으로 모두가 더 잘 누릴 수 있고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 그것이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합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공형보다는 더 다양한 문화정책지원을 통해 지역을 되살릴 것이고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더 많은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예산을 보내도록 할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소득을 받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더 좋은 돌봄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존경받을 것이다. 에너지를 덜 쓰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적인 삶을 지켜가는 사회. 이제 우리는 탈성장사회를 말할 때다.

# 청년 '남성' 당대표와 성차별주의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연 대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왼쪽, @티스토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운데, @오마이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오른쪽, @경남신문)

2021년 6월 11일, 이준석(36세)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원외정당으로까지 눈을 돌려보면, 20-30대 청년 당대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공동운영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녹색당은 2018년에 20대의 신지예를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1대 국회 원내정당인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상임대표 또한 30대 여성이다. 이미 20-30대 청년 당대표가 존재했지만 이준석이 ‘첫’(번째가 아님에도) 청년 당대표의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 이미 청년 당대표는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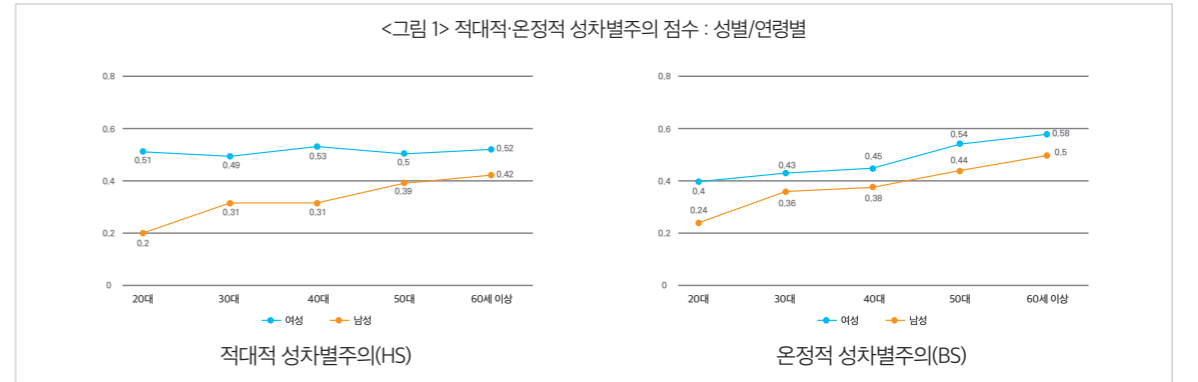
이준석이 ‘청년’ 당대표 프레임과 이미지를 독점하게 된 데는 한국의 공고화된 양당체제에 그 일차적 원인이 있다. 현재 한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당은 49개이지만 선거에서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두 개의 정당이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정치를 지배해왔고, 언론 또한 두 정당의 활동과 발언을 과도하게 전달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상상되는 선택지는 두 정당 중 하나로 고착화되었다. 두 정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기에 다른 정당들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너무나 쉽게 삭제된다. 정권 획득이 가능한 제야당이라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이준석 신임 당대표에게 지금과 같은 주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성별화된 정치체제이다. 수천 년 동안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었고, 지금도 남성의 영역이다. 남성이 정

치의 기본값이고, 남성성이 정치의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정치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의심의 부담, 대표성에 대한 부담감, 어린애 취급, 과잉 감시’를 겪게 되며 “너무나 쉽게 바람직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너말 퓨워 2017).” 이미 2-3년 전에 청년‘여성’ 당대표가 등장했지만 이들 여성의 도전과 성취에 대해서는 ‘기대’나 ‘격려’보다는 ‘의심’과 ‘감시’, ‘우려’가 더 크게 작동하며, 평가 또한 박하게 작동한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관심과 열광은 한국의 청년정치 또한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 반페미니즘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대권주자로까지 주목을 받게 되어 그의 ‘반페미니즘’ 전략이 유효했다는 사실은 페미니즘이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진행된 ‘페미니즘 리부트’(feminism reboot) 속에서 2030 여성들이 소라넷,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폭행·살인 사건들), 게임계 사상검증, 채용 성차별, 현실정치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손희정 2020)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드러냈지만 이를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보다 기존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로의 회귀를 바라는 백래시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백래시의 기저에는 뿌리 깊은 성차별주의(sexism)가 자리잡고 있다.



## 성차별주의, 가부장적 질서와 성별관계 정당화

성차별주의는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즉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으며, 그것이 정당하다는 관념이다. 물론,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는 여성을 남성의 권력을 빼앗는 존재로 보고, 남성의 것이었던 권력을 빼앗는 여성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그러한 여성들에게 벌을 줘야 한다는 관념인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는 여성을 연약한 존재로 보며,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보호와 보살핌을 제공하는 등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관념이다. 두 개의 성차별주의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모두 가부장적인 질서와 종속적 성별관계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성평등과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러한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가 한국 시민들의 의식 속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성별과 연령을 교차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 인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모든 연령대에서 유사한 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마경희 외 2018; 이진옥 외 2020). 반면, 여성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온정적·적대적 성차별주의 점수는 남성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20대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크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첫째, 여성을 보호나 보살핌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는 남성 내 세대 차이가 존재하지만 여성을 적대적 존재로 보는 인식에는 남성 내 세대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남성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반페미니즘을 외친 이준석에 대한 지지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해주고 있다.

둘째, 성차별주의는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전통적인 성별규범을 내면화하고 있으며, 이들 여성에 의해서도 성차별주의가 공고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차별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20대 여성은 온정적·적대적 성차별주의를 가장 거부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성차별주의 타파는 20대 여성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2030 청년세대가 겪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는 성차별뿐만 아니라 계급·계층, 학력, 장애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중첩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여성과 남성 간 적대가 아닌 연대와 협력에 의해서 해결 가능하다. 20대 여성은 온정의 대상도 적대의 대상도 아니다.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20대 남성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20대 남성 또한 성평등한 세계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 전망과 한국의 역할

## I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에만 해도 한미 간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북정책에는 매우 큰 이견이 존재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양국 간에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지난 5월 21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적, 점진적, 단계적, 유연한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접근할 것임을 확인시켜주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굉장히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임을 인정하면서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애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말만 가지고 북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미 국무장관이나 다른 당국자가 먼저 북한과 협상을 진행해 구체적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팀이 먼저 만나 핵무기 감축과 긴장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미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실제로 있어서는 트럼프와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추구하면서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남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 비핵화 실질적인 진전 위해 중국의 적극적 협조 이끌어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과정에서 올해 1월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퇴임함으로써 4개월간 공석으로 남아있었던 대북특별대표에 성 김(한국명 김성용)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한국을 모두 잘 아는 한국계 외교관을 대북특별대표에 임명한 것은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 하에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매우 유연한 대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북한의 협상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가 미중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북핵 4자회담이나 일본,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6자회담 추진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적실성 있는 대북 협상전략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딜레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실무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미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유연한 대북 접근을 선택함으로써 북한의 대미 입장에도 향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은은 올해 1월에 개최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향후 "대외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최대의 주적(主敵)'이라는 매우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런데 북한 지도부가 언급하고 있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및 미국의 대북 정찰 활동, 한미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 수립, 미국의 북한 인권 비판, 북한의 인공위성로켓과 단거리로켓 발사 등에 대한 대북 제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이 같은 '대북 적대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이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해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북한이 이처럼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강경한 조건을 고수한다면 북한은 언제까지나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북한경제의 회복과 발전도 쉽지 않을 것이다.

### 북핵 4자회담의 필요성과 한국정부의 과제


북한과 미국 간에는 매우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국이 협상을 통해 핵심 현안들에 대해

점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북미 간에 대화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한국, 북한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중국이 참여하는 미중과 남북한의 북핵 4자회담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방역과 인도주의적 문제 등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미 협상과 남북 협의를 상호 추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은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남한이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북한의 거둬드는 경고를 계속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방역협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 미중·남북한의 북핵4자회담 개최에 희망 걸어

한국정부는 방역협력이나 인도주의적 협력과 같은 낮은 수준의 협력보다 미국과 중국, 남북한 등이 참가하는 북핵 4자회담 개최를 통해 북한의 단계적 핵능력 감축과 대북 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나 중단, 정전 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 관계 개선 등에 대해 관련국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현재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에 대한 우려로 대외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정부는 우선 4자 화상실무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력이 생기면 북한에 백신과 치료제를 제공하면서 북한이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대면 대화와 교류에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고는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6월호에 게재된 원고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이름 모를 청년들



## | 대학·청년YWCA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5주년을 맞은 올해.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산업재해 사고로 일터에서 세상을 떠나고 있다. 2021년 4월 22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300kg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이선호씨, 부산항 신항에서 퇴근 길에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30대 청년 등. 올 한 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청년은 총 7명이다. 2021년 1월~3월 사이 7명의 청년을 포함한 노동자 238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청년들의 산업재해 사망은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사회를 보며 느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번 청년토크에 참여한 청년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쓰였다.

### 사건과 사고

하나 : 최근에 한강에서 실종 사망한 손정민 군이랑 평택에서 사망한 이선호 군. 두 명의 청년이 우리 곁을 떠났잖아. 다들 뉴스 봤지?

빛나 : 그래? 나는 한강에서 사망한 손정민 군 사건만 알았어. 평택에서 사망한 사건은 어떤거야?

예원 : 맞아. 대부분 너처럼 실종 사건에 대해서만 알더라고. 이선호 군은 평택항에서 일을 하다가 컨테이너에 깔려서 사망한 친구야.

하나 : 둘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할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잖아. 근데 왜 사람들의 관심은 실종 사건으로만 몰리는 걸까?

예원 : 평택항 사고는 사망의 원인이 밝혀졌고, 한강 실종 사망 사건은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빛나 : 그러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산업재해 사고잖아. 근데 이선호씨 사건이 점점 묻혀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예원 : 5년전에 있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분도 고작 19살이던 청년이었어. 이선호씨를 보면서 그 일이 생각나더라고. 5년이 지났는데도 근로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게 한탄스러워.

### 빨리빨리

하나 :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에서 빨리빨리를 강요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 사건도 빨리빨리 분위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예원 : 맞아. 예전에 피자 빨리 배달하는 시스템 때문에 배달원 청년이 사망해서 난리난 적도 있었잖아.

빛나 : 그래. '피자 30분 배달제'가 있었지. 근데 지금도 달라진 건 크게 없는 것 같아. 배달 어플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배달원들끼리 경쟁이 붙고, 배달건수를 더 늘

리려고 불법 운전, 난폭 운전을 너무 많이해.

예원 : 배달원 뿐만 아니라 택배 노동자, 마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환경 문제도 만만치 않아.

하나 : 한 여름에 일 하는 택배 배달원, 일용직 노동자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조금은 여유를 가져야 할 것 같아.

빛나 : 강도가 높고 위험한 직업들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 아프니까 청춘이다?

빛나 : 누구나 위험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지만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젊어서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

예원 : 청년들도 위험하고 힘든 일은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어리면 무조건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직장 내 분위기가 있어.

하나 : 그리고 일터에서 사전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일터나 안전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

빛나 : 맞아.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들에 대한 '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해. 어떤 일이든 위험할 수 있어. 그런데 회사 내에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규칙을 세우고 잘 지켜야 하면 큰 사고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예원 :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고생하는 택배 배달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 집앞 배달이 아닌 택배함에 물건 놔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주 사소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엄청 편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해보는 거지.

하나 :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도 필요한 것 같아. 강도가 높은 일일수록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빛나 : 그러려면 우리부터가 그들을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빛나 :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계속되면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처벌하자는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자고 이야기가 나오더라.

예원 : 맞아. 나도 들었어. 법률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에서 노동 교육을 제도화해야한다고도 말하더라고. 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나 : 졸업 후 바로 산업 현장에서 일하게 되는 공업, 상업 고등학교 뿐 아니라 일반 인문계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교육이야.

빛나 :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 그럼 사업주들은 산업재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왜 자기들 탓을 하나 이거지.


하나 :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 조금만 노력하고, 안전하게 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

빛나 : 근데 그들은 먹고 살기 바쁜 청년들이 일할 때 정신이 없어서, 자신이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말하더라고.

예원 : 그런 사건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일들은 노동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대다수였어. 그리고 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게 상사에게 보고하는 시스템도 화가 난다고.

빛나 :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일을 할 때 안전문제에 대해 더 조심하고, 신경 쓰게 만들어야 돼.

예원 :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위험한 일을 하다가 사고난 청년들을 보면 청년도 안타깝지만 그 부모님들이 너무 불쌍해. 대부분 그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

하나 : 너무 안타깝다. 이런 법들이 제대로 구축되고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서 자식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 남북 여성 교류 30년, 돌아보고 내다보다

## | 최수산나

(사)한국YWCA연합회 부장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간담회

지난 6월 2일(수) 청년문화공간 주(JU)에서는 남북여성교류의 시작이 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개최 3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역사적 현장에 참여했던 여성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약 80여 명의 여성들이 참석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평화 이야기를 나누었다.

### 선구적 역사를 열어나 남북여성들

30년 전인 1991년 남과 북의 여성들은 만남과 교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판문점을 직접 통과하여 서울과 평양에서 공식화된 만남과 토론의 자리를 가졌고, 이 선구적 만남은 국내 여성평화통일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소떼 1,001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방북하여 금강산 방문 및 경제교류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1998년이니, 그보다 훨씬 앞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섰던 최초의 민간 교류주역들이 바로 남북의 여성들이었다. 2015년 글로리아 스타이넵, 리마 보위 등 국제여성들이 DMZ를 통과해 북에서 남으로 걸어내려온 일은 전혀 생소한 첫 경험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30년 전 남북만남의 성사 이후 끊이지 않는 시도와 노력으로 묵묵히 이 평화의 길을 닦아온 국내 여성들의 주체적 역사가 주춧돌이 되어 가능했던 일이다.

### 돌아봄1. 네 번의 만남 속 이야기

여성들의 만남은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진행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에서 시작한다. 여성 민간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은, 오랫동안 기독교 여성운동을 해 온 이우정 교수가 1990년 일본 히로시마 평화집회에 참여하여 일본 사회당 참의원 시미즈 스미코 의원을 만나면서이다. 이우정 교수는 분단의 현실과 이산가족들의 상황을 전

하며 남북여성의 만남 주선을 요청하였고, 스미코 의원은 역사에 대한 사죄와 청산이 없는 일본에 책임감을 느껴 남북한 화해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만남이 성사된 데에는 스미코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일본부인회의를 비롯하여, 일본YWCA연합회, 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회, 기독교 부인교포회 등 일본 기독교여성단체들의 협력이 컸다. 이는 아시아의 냉전시대인 한반도의 분단을 해소하지 않고는 아시아에 평화가 없다는 공동된 인식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북·한·일본 여성의 연대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처음부터 일본 여성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세미나는 1991년 1월(1차, 동경), 1991년 11월(2차, 서울), 1992년 9월(3차, 평양), 1993년 4월(4차, 동경) 총 4차례가 성사되었다. 1차 세미나에 남·북·일 여성대표 1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종군위안부 보상, 한반도 비핵지대화 창설, 조·일 국교정상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이 모임에서 남측 이우정 교수가 제2차 서울 세미나 개최를 제안했고, 이를 받아 북측의 려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제3차 평양 개최를 제안하였다.

1991년 11월 25일에서 30일까지 진행된 제2차 서울 세미나는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와 여성’을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 예산 없는 대규모 행사의 비용 마련

을 위해 교회여성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 7천만 원 예산을 상회하는 총 9천만 원이 모금되었다. 북측은 여운형 선생의 차녀인 려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김선옥 해외동포영접부 부부장, 정명순 “조평통”참사, 최옥희 평양신학대학 대학원생, 홍선옥 평화군축연구소 연구원 등 15명의 대표단이 판문점을 거쳐 남한에 왔으나, 아쉽게도 북측 참가자 숙소 주변 반공 시위 등으로 인한 신변위험을 이유로 조기 귀환을 발표하고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환하였다.

제3차 평양 세미나는 1992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었고, 남·북·일본 여성 대표 총 250명이 참석하였다. 남측은 여성 원로·기자 등 약 30명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조아라 광주YWCA명예회장이 한국YWCA 대표로 참석하였다. 토론 주제는 ‘민족의 대단결과 여성들의 역할’,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책임’,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등으로, 북한에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가 직접 증언하는 시간이 있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남·북·일 연대를 결의하였다.

4차 동경 세미나는 1993년 4월 22일부터 29일 동안 약 1천 명이 참여하였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과 전후보상, 아시아 평화, 한반도 통일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토론했다. 남측은 종군 위안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우선시하는 반면, 북측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문제를 중요시하는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5차는 일정이 연기되면서 그 후 세미나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 돌아봄2. 남북일 사회에 남긴 것

남북한과 일본의 여성들은 세미나를 통해 각기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한국은 1997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창립하여 본격적인 평화통일운동에 나섰고, 북한은 1998년 조선녀성협회를 창립하였으며, 일본은 기존 조성여성과의 연락회를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협의회로 개편하였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남북일 여성들이 과거사 청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공동과제로 결의한 것이다. 4차 토론회는 북한의 NPT 탈퇴로 국제 정세가 좋지 않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남북일 여성들의 의지와 협력으로



김일성 주석궁에서 김주석과 기념촬영을 한 남측 대표단.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조아라 명예회장. 1992년 제3차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진행될 수 있었다. 또한 1992년 조직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남·북을 포함,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2000년 동경 법정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일본전쟁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는 2002년 금강산 및 2005년 평양 남북여성통일대회로 연결되어 여성들의 연대를 보여줬으며, 2015년 국제여성들의 WCD로까지 그 정신을 이어왔다.

### 내다봄. 여성평화 역사를 쓴다는 것

남북여성교류 30주년을 맞이하며 참가자들은 여성들의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음을 자각했다. 남과 북의 여성들이 상호 상반된 역사적 지식과 젠더의식·사상 속에서도 합의를 만들고자 애썼던 인내와 지혜, 그리고 남쪽 여성들의 정치적 다양성 속에서도 좌와 우가 조금씩 좁혀진 경험들, 그 자체가 평화·통일의 이야기들이었다.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공적인 공간에서 기억하고 기록함으로써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고 미래의 비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는 평화를 향한 남북 여성들의 진정성과 주체성이, 국제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 한반도 종전 평화 운동에 결합되며 보편성과 확장성을 갖추는 모습을 보고 있다. 평화의 발걸음은 이 땅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제 새 길을 논함에 있어 여성들이 주체되어 원하는 평화 과정에 끝까지 참여함과 동시에 민족과 지역, 젠더와 세대를 뛰어넘는 생명평화 세상의 비전을 통해 평화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써야 할 때이다.

# 창립 100주년 앞둔 한국YWCA 혁신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직으로

## | 박동순

(사)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국장

회원Y 재구조화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전국 52개 회원YWCA 가운데 지역법인 설립을 완료한 회원YWCA가 11개(대구, 대전, 목포, 서울, 수원, 안산, 안양, 여수, 인천, 순천, 청주YWCA), 앞으로 4개YWCA(광주, 세종, 울산, 제주YWCA)가 7월 전환 신청을 앞두고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회원YWCA 재구조화 정책」에 따라 회원YWCA는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의 분사무소의 지위에서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으로 전환 유형을 결정하였고, 연합회는 이에 따라 각 회원YWCA가 전환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 전환을 앞둔 회원YWCA의 교육과 컨설팅, 자산 이전 과정을 밀착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1년 5월 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에서 진행한 회원YWCA 설문 조사에서는 법인은 28개 YWCA(원료YWCA 포함), 비법인사단 추진은 24개 YWCA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설문 조사 이후 상반기 동안 회원YWCA 상담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바로는 비법인사단에서 법인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회원YWCA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회원YWCA의 법인화를 지원하면서 수많은 법적 자문과 세무 검토를 하였음에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구조의 변화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 연합회와 후원회의 지점 탈퇴, 자산이전 결의 과정 사업권 등 포괄적 이전 필요

한국YWCA의 재구조화는 다른 비영리조직의 지역법인화 과정과는 전혀 다르다. 한국YWCA연합회 및 후원회 2개의 중앙법인 또는 복지사업단까지 포함한다면 3개의 중앙법인과 분사무소인 회원YWCA와 회원YWCA의 부속시설과 복잡한 관계로 인해, 연합회와 후원회의 지점 탈퇴 및 자산 이전 결의 과정을 거치고, 지점으로서의 지위로 영위해 왔던 사업권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가 짧거나, 자산이나 부속시설이 없는 일반적인 비영리조직의 법인화는 중앙법인과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신규 사단법인 설립의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되므로 특별히 중앙법인의 의결과 재산 출연 계약 등이 필요하지 않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의 법인화 과정과 비교하면 그런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회원YWCA는 후원회의 분사무소로서 사단법인격으로 활동을 해왔고, 사단법인과 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 사항을 후원회가 대신해 왔기 때문에 재구조화 이후 회원YWCA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이해뿐 아니라 행정 업무 증가를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실제 법인완료Y 사무총장연구모임에서도 법인이 되고 지자체와 국제청의 자료제출, 신고, 부속시설 관리 등 후원회가 대신해온

행정 업무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위낙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규제에 관한 법규가 많은 상황에서 복잡한 현행 법규와 제도, 비영리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재구조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의 세무, 법무에 관한 전문기도 적다 보니 수도권외 회원YWCA의 경우 절차를 제대로 자문해 줄 전문 인력의 확보도 부족할 뿐 아니라 비영리를 모르는 전문가의 자문이 도리어 업무에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았다.

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YWCA의 고문번호사와 회계 세무법인 외에 별도로 지난 5월 7일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세법상 공익법인 및 단체의 세무와 출연 재산 관리, 비영리조직의 법제도에 관한 전문가 다섯 분을 '회원YWCA 재구조화 지원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자문위원들은 한국YWCA의 재구조화 정책과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조직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정비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을 깊이 공감하며, YWCA가 어느 조직도 시도할 수 없는 역사적인 결단을 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며, 회원YWCA와 함께 어려운 과정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라고 격려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법인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사례들 하나하나가 전문가들조차 처음 접할 정도여서 YWCA 재구조화를 통해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YWCA만의 일이 아니라 공익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소감들을 전했다.

## 회원YWCA 전환 지원 사례를 통해


### 재구조화 5개년 계획과 정책 보완하며 실행

회원YWCA의 재구조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가보지 않은 길을 앞서가며 법인화를 진행했던 회원YWCA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향후 진행될 회원YWCA의 전환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법인 설립 후에 부속 시설 및 본부 사업의 이전과 후원회 지점 탈퇴까지 완전히 완료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으나 어려운 관문인 법인 설

립을 마쳤기 때문에 남은 과정들도 순조롭게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회는 그동안의 회원YWCA 전환 지원 사례를 통해 축적된 실행 경험을 YWCA의 법인/비법인사단 전환 승인 기준을 포함하여 재구조화 5개년 계획과 정책에 보완하여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재구조화 전환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비영리단체와 관계된 현행 법규상의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운동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와 후원회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YWCA의 재구조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정부 부서와의 정책 협의도 속도를 내어 진행할 계획이며, 관련 학회와의 협의, 여성폭력관련 시설협의 회 등의 공론화를 이끌어내 실질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에서도 ESG경영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영리 기업에서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기반으로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YWCA의 이러한 혁신의 과정은 창립 100주년에 미래 선언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이미 실행하고 혁신의 과정에서 새로워진 한국YWCA의 100년을 열어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변화는 모두에게 낯설고 힘든 여정이지만 이것을 함께 결단하며, 더욱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해 어려움을 헤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전국 회원YWCA가 있기에 한국YWCA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 새롭게 허락하실 한국YWCA의 새로운 다음 세기(century)를 기대하며, 아프고 힘들고 고통 받는 여성들과 함께 더욱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전국 곳곳에서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회원들로 넘쳐나며, 변함없이 하나님나라 운동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신뢰 받는 YWCA의 모습을 그려본다. 



김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주)로컬프렌들리 대표

YWCA청년들로 구성된 로컬프렌들리는 지역 재생과 청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험적 도전을 하기 위해 2019년 군산으로 파송됐다. 앞으로 총 4번의 글을 통해 군산으로 떠난 YWCA청년들의 이야기가 연재된다.

### 지역을 살리는 청년? 지역을 떠나는 청년

2017년 3월,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 담당 간사가 되었다. 간사로 처음 마주한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전국운동주제는 '지역을 살리는 청년'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는 전국 시·군·구 228곳에서 89곳이 소멸위험지역이라 말한다. 지역엔 사람이 줄고 서울은 사람이 넘치는 양극화 현상 '서울공화국'은 뉴스가 아닌 현실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에도 같은 주제로 전국각지의 YWCA청년들과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여러 활동들을 펼쳤다. 하지만 지역을 살리기에 청년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 직업·생활·주거 등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들이 발앞에 쌓여있었다.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활동했던 청년들은 지역을 살리는 청년이 되기 전에 결국 일자리를 찾아 그 지역을 떠났다.

### YWCA 활동이 삶이 될 순 없을까?

YWCA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들이 시민단체 활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YWCA 활동이 삶의 문제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이 될 순 없는지', 삶의 지속가능성까지 담보할 순 없는지' 더욱 쉽게 말해보자면, 'YWCA의 가치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동시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익까지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그 고민이 정점에 이르렀던 2019년, 대학·청년 담당간사 2명(연합회 김수진, 청주Y 김광식)과 YWCA 청년회원 2명(거제Y 차민규, 대구Y 손지수)이 'Y-LAB(YWCA 청년연구소)'이란 팀을 구성하였고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에 최종 선발되었다. YWCA가 100년간 지녀온 사회적 가치를 비즈니스화시키고, 지속가능한 YWCA청년모델 개발

1) 로컬라이즈 군산(Local:Rise Gunsan)은 군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로컬 창업과 혁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프로젝트다. SK E&S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연대은행, 언더독스 주식회사와 함께 '청년혁신가, 창업, 지역재생'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군산에서 처음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localrise.co.kr/> 참고)



①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해 직접 페인트 칠을 했다.  
② 커뮤니티호텔 오픈 준비 중이다.  
③ 지역주민과 함께 원도심 재생 활동에 한창이다.

과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한 모범이 되고자 우리는 군산으로 향했다. 지역 공동체의 갈등과 지역 청년의 지속가능함에 대해 고민하며 동료들과 함께 직접 창업에 도전했다. YWCA 가치가 내재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역재생'과 '커뮤니티(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했다. YWCA 청년들과 활동하며 체득한 '먹고, 마시고, 놀고, 자는' 생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비즈니스로 풀어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가치적 측면에서는 만점이라 할지라도,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비즈니스 영역에선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그 치열한 과정에서 YWCA 청년운동과 청년조직의 실험적 모델을 지역 안에서 실제로 만들었고, 주식회사 로컬프렌들리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군산에 스며들어 '살게' 되었다.

### 로컬프렌들리: 재밌는 지역, 살고 싶은 지역을 꿈꾸며

초기교회공동체 교제(행2:46)와 YWCA의 지역운동, 청년성에 기반을 둔 로컬프렌들리는 '로컬 커뮤니티 매니지먼트' 회사로 환대(Hospitality)와 휴먼터치(Human Touch)의 가치를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디자인한다.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커뮤니티 콘텐츠를 기획한다. 지역내 공동체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군산 원도심에서 '커뮤니티호텔 후즈'라는 숙박형 공간운영과 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마을이 호텔이 되는 커뮤니티

호텔은 기본적인 컨시어지 서비스 '로컬'과 '커뮤니티'라는 키워드를 더한 개념이다. 로컬 식당과 펌, 카페, 샵 등 우리가 큐레이팅한 군산을 즐길 수 있도록 '쿠폰'과 '마을지도'를 제작했다. 숙소를 방문한 여행자들이 단순소비와 표면적인 관광지뿐만 아니라 군산을 만나지 않고 지역과 현지 커뮤니티와 연결(link)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YWCA 커뮤니티의 능력

실제로 커뮤니티의 단절이 가지고 오는 아픔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많다. 관계의 단절과 소외 문제, 외로움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로컬프렌들리의 커뮤니티 사업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1931년 YWCA 교사로 샘골에 파견되어 농촌계몽운동에 일생을 바쳤던 최용신 선생님처럼 군산에 사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재밌게 모여 살고, 지역민 커뮤니티의 분위기와 매력에 반한 외지인들이 군산을 찾고, 계속해서 군산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즐거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지역민과의 만남에서도, 외지인과의 만남에서도 YWCA안에서 일하고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터득한 우리만의 가치와 커뮤니티 능력은 모두를 놀라게 한다. 이 달란트를 품고 우리는 오늘도 군산에 산다. 우리를 통해 군산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군산이 재밌어서, 군산의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그냥 군산이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여행자가 아닌 여행처럼 사는 군산으로 언제든 오세요.


#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 철회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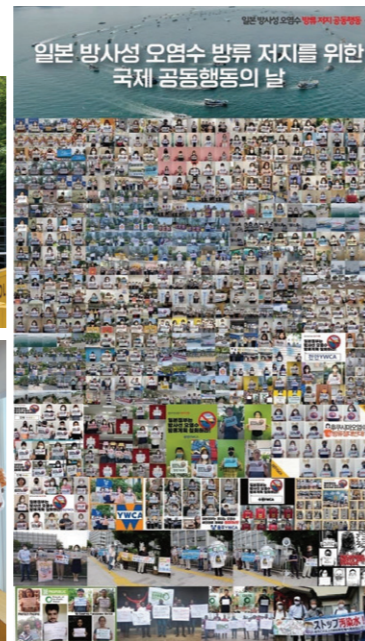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함께 행동했다. 약 60여 개 시민사회가 모여 5월 26일(수)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을 출범한 이후 공동행동에서는 6월 5일 세계환경의날, 6월 8일 세계해양의날을 맞아 국제공동행동을 진행했다.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40여 개 회원YWCA에서는 미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한 '한일 양자 협의체'구성을 앞두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국제공동행동 주간인 5월 26일(수)부터 6월2일(수)까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국제공동행동 주간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은 방사성 오염수의 태

양 방류에 대한 우려와 반드시 일본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인증샷을 통해 국제공동행동을 펼쳤다. 인증샷을 묶어 만든 웹자보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국YWCA의 인증샷이 곳곳에 보인다

한편 국제행동의날인 6월 2일(수) 오전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천 YWCA 우진주 탐장이 릴레이발언에도 참여하였고 일본대사관을 둘러싼 1인 시위에는 연합회 활동가들이 동참했다. 



## 릴레이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천YWCA 활동가 우진주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이동과 집회가 자유롭지 못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제천에서 올라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곳에 온 이유는, 코로나로 비록 소수만이 함께 할 수 있으므로,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위해 일하는 한국YWCA 52개 지역의 10만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 달 4월 13일 우리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엄청난 소식을 접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져만 가는데, 일본 정부는 건강과 생명은 뒷전으로 하고, 여전, 시대에 뒤떨어진, 핵 발전과 경제 비용이라는 욕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적인 방법은 검토도 하지 않았고 환경 평가도 거치지 않았으며, 가장 인접국인 한국에는 동의 절차도 없이 통보함으로써, 이런 비도덕적인 결정을 강행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을 지내오면서, 방사능이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목도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 사고에서도 아무 교환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은, 결국 자국의 경제적 이익은 커녕, 현 세대를 살아가는 청소년과 여성들, 결국 자국의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가하는, 매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인 것입니다.

YWCA는 이 언어도단적인 현실에 분노하며,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동조하는 미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입장을 선회하며, 미온적인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여, 이 무지몽매한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을 끝까지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 일본 대사관에 보내는 편지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합니다

대사님,  
우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부지에 보관되어 있는 약 125만 톤 이상의 오염수를 처리한 뒤 태평양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이 편지를 보냅니다. 오염수를 처리한다고 하여도 모든 방사성물질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결정을 재고하고 오염수 장기 보관을 위한 대안을 찾으라는 국제 사회의 요청에 우리도 뜻을 함께 합니다.

다핵종 제거설비로 처리해도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무시하고, 처리수를 마셔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오염수를 희석시켜도 바다에 방류될 방사성 물질의 양에는 변함이 없고, 그 방사성 물질들은 해양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세계 어장의 5%가 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염수가 드넓은 태평양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해양 자원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국가는 부국들의 핵실험 여파와 핵폐기물의 불법적인 투기로 이미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습니다.

우리들은 일본 정부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
-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1년 6월 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



## ‘P4G 멈춰, 우리가 바로 녹색이다’



### ! 편집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P4G 서울정상회의)’를 비판하는 집회와 행진을 5월 3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했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녹색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및 글로벌 목표 2030’이라고 하며, 녹색 성장을 중심 의제로 다루는 국제 환경회의이다.

이날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2030년 온실가스 절반 이상 감축, 석탄발전 건설 및 투자 중단 등을 촉구했다. 약 2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각자의 목소리가 담긴 손 팻말을 들거나 마스크에 메시지를 담았다.

이날 시민과글와글 행진에는 기후행동캠페인에 참가한 연합회를 비롯한 고양YWCA, 광명YWCA 활동가들이 9인

으로 한 조를 이루어 개최지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동대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까지 행진하였다. 한국YWCA는 <그린위상 P4G 중단! 탈핵·탈석탄으로 정의로운 전환 실현> 현수막을 들고, 참여 회원YWCA가 직접 만든 피켓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단하고, 정의로운 탄소 감축 실현하라; 2030 온실가스 배출목표, 50% 설정 법제화하라!’ 등의 주장을 넣어 정부의 그린위상을 반대하고, 정의로운 녹색 실천을 할 것을 다짐했다.

P4G라는 기만적인 국제 회의를 진행하며 국내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고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과 같은 탄소 다배출 토건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국제회의에서 공허한 말잔치는 그만하고, 구체적인 2030 탄소감축 목표를 세울 것을 촉구했다.

(사)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탈핵시민행동 단체들은 6월 8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로 핵발전 지속을 꾀하고 있는 정부의 무모한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 소형모듈원자로(SMR) 추진 한미원전수출협력 규탄 기자회견문 |

##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할 수 없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중단하라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이 수십 년간 성과 없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에 ‘혁신형’이라는 형용어와 수출 전략까지 가세시키며 핵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국회 과기위원장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은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발족시키며 차세대 핵발전 산업으로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육성에 대한 결기를 다지고 있다. 찬핵인사로 분류되던 송영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 후 청와대와의 회동에서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원전 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약속했다. 그칠 줄 모르는 핵발전의 망령이자 변형이다.

기만적이기까지 한 것은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추진과정의 명분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 지구적 과제와 함께 포장된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핵발전의 위험으로 인류와 생명을 내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폭우, 홍수, 태풍, 침수, 폭염을 동반하는 기후위기의 이상기후는 핵발전을 위태롭게 하며, 안전상 핵발전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또한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과 조응할 수 없는 방식이며 오히려 계통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다.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 핵사고라는 거대 참사를 경험한 전 세계는 탈핵로드맵을 수립해 왔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점진적이나마 탈핵이라는 기조를 세웠다. 그러나 안전문제로 단계적 축소 기조를 세운 국내 핵발전 정책과 모순되는 행보 중의 하나가 핵발전 수출지원정책이었다. 핵산업 육성을 위해 핵발전을 확산하며 위험을 수출한다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것이 이번에 제시한 ‘혁신형’이란 이름을 붙여 새로워 보이지만 오래된 실패작의 변형된 모델이다.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은 이미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 수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되어 온 사업으로 기술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음이 수십 년간 확인되고 있는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현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소형원자로는 더욱 경쟁력이 없다. 전원이 상실되어도 핵연료 용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주장 역시 결코 검증된 바가 없다. 둘 곳 없는 사용후 핵연료를 발생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위험을 가진 다수의 위험시설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소형원자로를 작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수용성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주장 역시 망상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수천억을 투자했으나 실패를 거듭해왔던 전례가 있다. 해수담수화용 원전으로 추진되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공식 폐기된 사업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출용 원전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의 설계를 변경하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를 아니다.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 핵발전소와 다를 바 없는 위험기술, 위험원자로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핵발전 육성 전략 기초 속에 거꾸로 가는 안전, 위험사회 한 가운데로 돌진하는 ‘혁신형’이라는 이름의 소형원자로 개발과 이를 매개한 원전 수출 시도를 중단하라. 지금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원전이 아니라 안전이다.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과제이다.

2021년 6월 8일  
탈핵시민행동

# 지구 온도 상승 1.5도 내로 제한해야 기후시스템 붕괴 막는다

## 남궁혜경

고양YWCA 국장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약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의 기온상승을 1.5도 내로 제한해야만 기후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 감염병, 금융위기 등 숱한 위기들을 관리해 왔고 그 위기들을 넘겨왔지만 지금 맞닥뜨린 기후위기는 회복 불가능한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관리와 통제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삶의 불편을 넘어서 인류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는 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국가 차원의 정책 변화, 지역과의 연계

#### 에너지 생산과 소비 패러다임의 전환 이루어야

한국YWCA는 100주년을 앞에 두고 인류 생존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운동목표로 설정하였다.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어떤 주체가 어떤 철학과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를 들여다봐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YWCA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지역과 국가 차원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생산과 소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 내고자 실무활동가 단위의 'YWCA 탈핵기후행동학교'를 기획하였다.

'YWCA 탈핵기후행동학교'는 6월 3일(목)부터 7월 1일(목)까지 격주로 3회기의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회원YWCA 각 지역의 기후행동 목표설정 및 행동계획수립, 지역 및 전국단위 실천과 공동대응 협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1년 제 1차 YWCA 탈핵기후행동학교는 지난 6월 3일(목) 전국 18개 지역에서 모인 실무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의 '탈핵 기후위기 주요 현안과 시민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기후위기의 주요한 주범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배출 상위 업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석탄발전, 핵발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각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를 멈추게 하고, 핵발전소의 신규 건설 및 노후 핵발전소를 연장하지 않는 것,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법적 조문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의 운동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후위기가 기존에 있던 불평등을 어떻게 더 심화시키는지를 보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한 지역의 희생을 통



탈핵기후행동학교에 참여하여 지역의 기후행동 목표와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 다른 지역이 생존하는 지금과 같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체계가 아닌 에너지를 사용할 곳에 사용하는 만큼 생산하는 분산형 전력 계획의 수립, 탈탄소경제를 위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 등의 필요성 역시 살펴 보았다.

###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운동 사례 발표

#### 에너지 전환 담당사 '아토저' 사례 공유

강의 후 워크숍에서는 두 지역의 지역 활동 사례를 공유하였다.

먼저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은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으로 기후위기와 코로나 19시대를 성찰하면서 지역에서 발표되는 그린 뉴딜 사업을 젠더 관점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 삶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례 발표를 했다.

청주YWCA 이현주 팀장은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해 3년간 청주YWCA가 진행했었던 햇빛발전소 설치, 에너지시민리빙랩 에너지전환 담당사 아토저(태양광 설치를 위한 유희부지 발굴 및 설치까지의 전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소


개하여 지역에너지 전환 운동의 좋은 사례들을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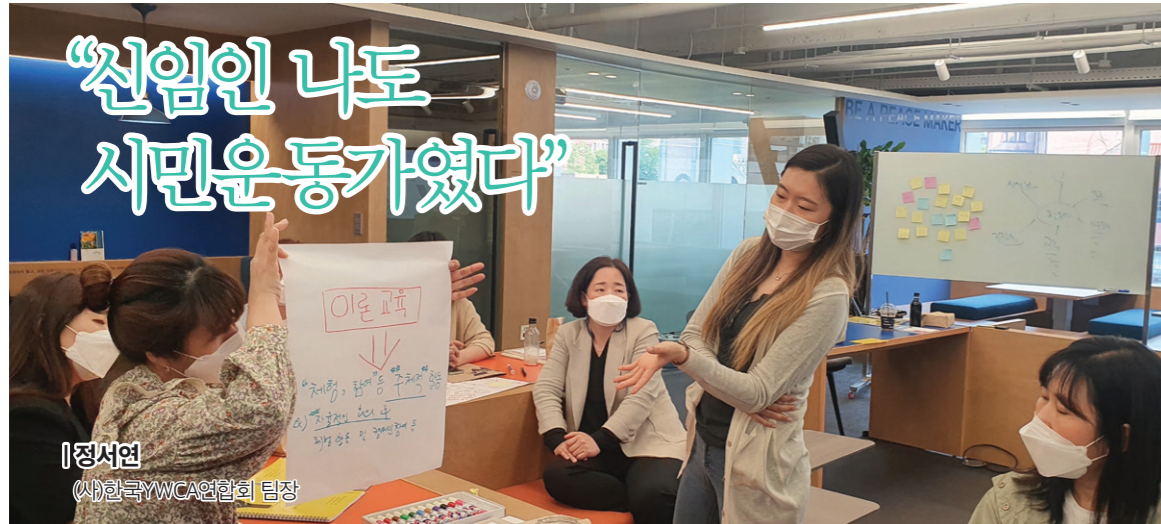
이후 모듬별 활동에서는 개인, 회원YWCA, 지역, 국가별로 현재 가장 중요하면서 시급한 이슈가 무엇인지, 각 그룹별로 공동행동을 제안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기후위기에 대한 공교육 확대,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교육, 자원순환교육 활성화, 지역내 기후위기 전담부서 설치 요구 등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기후위기와 함께 짧은 시간 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이대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 '유한한 자원 앞에 성장과 개발이라는 무한한 '욕망'을 멈추지 못한다면 향후 몇 년 안에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

지구가 보낸 청구서, 그 댓가를 지불할 시간이 다가왔다.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는 우리 모두 앞에 YWCA 탈핵기후행동학교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신입인 나도 시민운동가였다”

정서연 (사)한국YWCA연합회 팀장

올해 총 61명이 수료한 2021 YWCA 신입실무활동가 교육이 'Y', 'W', 'C', 'A' 네 주제로 나누어 5월 13일(목), 20일(목), 6월 10일(목), 11일(금)에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 교육은 이제 막 YWCA 활동의 첫 발을 댄 신입활동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단초로 운동의 영역을 확장시키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Y(청(소)년), W(성평등), C(기독교), A(회원)' 네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육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변화, 내부적으로는 한국YWCA 100주년을 앞두고 'YWCA 재구조화'를 통한 YWCA 변화의 한 가운데 열리는 신입실무활동가 교육이기에, 변화를 맞이하며 변화를 이끌어 갈 Y활동가들의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며 교육을 준비했다.

교육참가신청서 사전질문으로 'YWCA 활동가로 들어오게 된 동기를 물었다. '시민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Y에 소속되고자', '하나님나라 운동에 동참하고자', '사회복지운동을 하고 싶어서', '채용공고를 보고' 등과 같은 답변이 있었다. 기독교시민운동단체인 YWCA에서 일하고 싶어서 들어오거나 우연한 기회로 들어온 활동가도, 이제는 모두 YWCA 옷을 입은 활동가이다.

100년을 향해 가는 YWCA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은 신입활동가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물음이기도 하다. <YWCA 사명>과 <YWCA 정체성> 강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바이러스의 위협, 핵무기의 위협, 기후변화와 생태학적 위기 등 '위기의 시대'에 신앙의 실천자로서 현실의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시민운동단체 YWCA의 사명이 곧 활동가의 사명이며, YWCA 본연의 시민운동을 전개

하기 위한 재구조화를 통해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가들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을 알 수 있었다. 'YWCA 사람이다'. 100년에 가까운 YWCA 역사는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신앙을 실천해 온 사람들의 역사다. 이제 막 활동가의 삶을 시작한 신입활동가들은 <활동가 정체성>을 통해 우리들 자신이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인정했다. 한 교육참가자는 "실무자의 삶과 활동가의 삶이 별개인 줄 알았다. 그러나 YWCA 목적을 이루기 위한 YWCA에서의 모든 업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활동가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YWCA를 이해하고 활동가 정체성을 이해하게 된 활동가들은 이어서 <주제별 교육>을 통해 "그렇다면 활동가인 나는, 내가 관심있는 주제를 기초로 내 활동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했다. Y(청(소)년 운동)교육 참가자들은 '청소년들이 오고 싶은 Y'를 청소년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청소년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바를 마음껏 실천해볼 수 있는 열린 공간 Y'를 만들 것을, W(성평등 운동)교육 참가자들은 '여성의 권리회복뿐 아니라 누구도 소외될 없는 평등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것인지', C(기독교청년운동)교육 참가자들은 '기



<Y주제 참가자>



<W주제 참가자>



<C주제 참가자>



<A주제 참가자>

독공동체 안에서 이웃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 A(회원운동)교육 참가자들은 '더 많은 지역사람들이 YWCA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지' 함께 질문을 던지며 생각을 나누었다. 또한 YWCA 활동가로서 다짐도 나누었다. 2021 신입실무활동가 교육을 수료한 총 61명의 활동가들,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각 지역에서 펼칠 활동가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 우리들의 다짐

활동가인 나는 성장하는 시민 활동가로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회를 위해 미래를 내다 보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배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_강릉Y 최경선

실무활동가인 나는 시민활동가로서 더 나은 미래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선배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_남양주Y 이정은

생명을 살리는 YWCA에서 나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활동가로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해, YWCA 운동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옮기는 선배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_대전Y 박지현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는 실무활동가인 나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활동가로서 함께 잘 살아갈수 있는 사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며 본을 보여주는 선배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_진해Y 권영주

기독교여성시민단체 YWCA에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시민 활동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선배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_충주Y 유인숙

역동적인 YWCA에서 나는 직접 부딪히고 실행하는 시민 활동가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나 온전한 사회를 위해 오늘도 실천하시는 선배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_충주Y 송선경

하나님 나라인 YWCA에서 나는 약한자들을 위한 시민활동가로서 같이 함께가는 사회를 위해 선구자인 발자취를 따라가는 선배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_충주Y 박다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YWCA에서 나는 사랑을 전하는 시민활동가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선배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_하남Y 강승민



창원Y 교육 참가자들이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천Y 교육 참가자들이 활동가로서 다짐을 나누고 있다.

# 사회변화의 책임자, YWCA 신입이사



2021 YWCA 신입이사 교육이 5월 26일(수)과 28일(금) 양일에 걸쳐 총 28기Y 58명의 신입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었다. YWCA 목적과 정체성, 재구조화 방향과 목표, YWCA 이사의 역할 및 실천을 이해하고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00주년을 1년 앞둔 한국YWCA가 100주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YWCA 재구조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 자치성을 지닌 시민운동단체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이사의 책무성과 역할이 중요해진 이때에, 신입이사교육으로 모이신 이사님들의 눈빛에 더욱 결연함이 돋보였다.

첫 번째 강의 <YWCA 목적과 정체성> 시작에 앞서 원영희 한국YWCA회장은 “35세 미만의 젊은 이사님 몇 분 계신가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줌 화면으로 총 세 분의 이사님들이 손을 들자 회장님을 비롯하여 이사님들이 박수로 열렬히 환영하며, Y에 시작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셨다.

신입이사교육 신청서에 ‘교육에 기대하는 점’에 대해 ‘YWCA의 정체성과 이사의 역할’에 대해 알고 싶다고 대부분 응답하셨다. <YWCA 목적과 정체성> 강의를 통해 YWCA가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이사의 직책을 통해 이 사명을 실천해야함을 강조했다. <재구조화> 강의를 통해 YWCA가 나아가는 방향을 공유했다. 재구조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다. 신입이사들은 지난 99년의 이사들과 또다른 책임과 역할을 부여 받았다. 바로 지역 내 운동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에 앞장서 책임있

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YWCA이사의 역할> 강의로 회원Y 경영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구체적인 목록을 공유했다. “YWCA 이사 역할이 이렇게 막중한 것인지 몰랐다”는 이사님의 발언대로 신입이사님들은 YWCA 이사로서 내리는 의사결정의 무게를 깨달았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 각자 수행하고 있는 이사 역할과 이사회를 평가해보았다.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와 같은 평가와 제안도 나누고 “이사회를 탄탄하게 이끌어온 선배님들이 자랑스럽다” “이사를 특권이라 생각했는데 봉사직임을 깨달았다”와 같은 Y운동의 무게도 나누었다. 또한 “이사회를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Y가 변하는 걸 보니 기쁘다” “이제 회원증모도 자신있게 할 수 있겠다”와 같은 기대와 소망도 나누었다.

“YWCA 이사가 특권직이 아니라 봉사직이었군요!”라는 이사님의 표현처럼, YWCA 이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동역자이며 사회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YWCA 안에서 기쁨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사님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온라인으로 교육에 참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58명의 이사님들의 YWCA에 대한 애정과 헌신은 온라인의 한계도 뛰어넘게 했다. YWCA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인도YWCA 지원 모금



## 대학·청년YWCA

대학·청년YWCA는 6월 1일 인도YWCA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인도의 하루 코로나 사망자 숫자가 3,921명(6월 13일 기준)에 달한 지금, 인도YWCA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경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학·청년YWCA 회원들이 인도YWCA 지원을 위한 모금을 기획했다. 인도 지원 모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1922원 릴레이 모금 캠페인’과 일반 모금을 함께 진행한다. 릴레이 모금 캠페인은 1922원 모금에 동참한 사람이 다

음 순서로 모금할 사람을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 모금을 홍보하기 위해 현재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카드 뉴스로 인도의 코로나19 현황과 인도YWCA의 활동을 알리고 있다. 인도YWCA지원 모금 운동을 통한 모금액은 전액 인도YWCA가 경증 환자 수용 공간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YWCA

• 모금계좌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연합회는 6월 3일(목) 오후 7시 미얀마 무관부가 있는 옥수동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목요기도회를 주관하였다. 원영희 회장, 한미미 실행위원, 함희경 실행위원, 유성희 상임이사 외 연합회 실무활동가, 미얀마민주화를위한기독교행동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도회에서는 미얀마를 위한 기도문 낭독, 생영(Seng Awng)(Stand with Myanmar 대표)과 미얀마 은혜교회 청년들의 특송 및 연대 발언, 김민지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무국장)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미가서 6장 8절)”라는 말씀 선포가 있었다.

한미미 세계YWCA부회장은 시위 참여자들의 사망, 폭

력, 구금, 감시와 사찰 등이 심각한 미얀마 현재 상황과 생존자(피해자) 가족 지원, 긴급구호 물품 지원 등을 펼치는 미얀마YWCA의 활동을 공유하였다. 또한 한국YWCA가 제안하고 일본,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대만 6개국이 동의하여 세계YWCA와 UN관련 국제기구에 송부한 ‘미얀마를 위한 아시아지역YWCA 공동성명’도 공유하였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기도회에 참석한 YWCA회원들은 미얀마 현지에서 직접 돕지는 못하지만, 하루속히 군부의 폭력이 그치고 민주화와 평화가 오기를 계속 기도하며 지원할 것을 결단하였다. 

###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행동

## 한국YWCA연합회 미얀마를 위한 기도

사람이 고통 받는 곳에서 함께 고통당하시며 모든 이들을 살피시는 주님. 미얀마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하며 이어온 저항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모두 함께 사람같이 살기 위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통곡하는 자들과 함께 통곡하게 하시고 미얀마로 인해 온 땅에서 주님의 살과 피가 찢기고 짓밟히게 되었음을 아파하게 하소서.

군부의 폭압 아래 매일 꽃다운 주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차마 죽지 못하고 산 자도 차마 살지 못하는 시간을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야만에 놀아나고 있는 우리 세계의 무지와 오만과 무력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의와 평화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군부가 죄를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욕망과 두려움과 권력에 사로잡힌 마음에도 자비와 평화의 기억이 떠오르게 하시고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양심의 목소리가 들끓어지게 하옵소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이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히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들을 안보 해 주시어 절망에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도우시며 때때마다 지혜를 부어 주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폭풍이 지나고 나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들과 몸과 마음이 상처 입은 자들과 삶의 터전이 파괴된 자들이 남겨질 것입니다. 충분히, 또 안전하게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폐허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을 허락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함께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책임과 사명을 함께 질 수 있는 공존의 길을 찾기 원합니다. 서로가 이어짐으로 꿈처럼 멀리만 느껴지는 평화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인류를 죽음과 절망에서 구원하사 부활의 새 세상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 이한빛**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 2021년 여성주의 연합예배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늦은 8시, 한국YWCA연합회와 서울YWCA를 포함하여 17개 기독교 여성 단체 및 기독교 단체가 함께 연합예배를 드렸다. 순서를 맡은 담당자들은 명동향린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진행하였고, 예배는 실시간으로 송출되어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참여했다.

한국 기독교 여성 단체들은 매년 강남역 여성혐오범죄를 기억하며 현장예배를 드려왔다. 그러나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자, 작년에는 온라인 캠페인, 올해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되었다.

##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번 예배의 주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였다. 이 주제는 한국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하고 불의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많은 여성들은 가사노동, 돌봄 노동, 실업, 성범죄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 받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이러한 고통을 심화시켰다. 이미 불평등한 노동의 조건 속에 있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짐을 지웠고, 일자리를 빼앗았으며, 온라인 성폭력은 더 극심해졌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노출된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은 집에 머물며 위협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지난 1년 한국 여성들의 우울

증과 자살률은 크게 증가했다. 함께 예배를 준비한 단체들은 우리 주변의 여성들에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기 위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며, 마땅히 누려야 하는 각자의 양식을 주셨다. 여성들의 '일용할 양식'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다. 기쁨, 행복, 공평한 노동, 일자리, 안전한 공간, 정의, 평화.....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양식을 빼앗겨왔다. 이번 예배를 통해 여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바랐다. 우리는 예배에 이러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

예배는 총 2부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기도, 찬양, 말씀, 성찬 등의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었고, 2부는 '우리들의 이야기 나눔'으로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사연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위로의 시간으로 꾸러졌다. 모든 예배의 기도문은 각 참여 단위에서 각각 '코로나 시대 여성들의 생명, 죽음, 치유, '채용 성차별', '기후, 여성 생태주의적 관점', '디지털 성폭력' 등의 이야기가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 여성들의 주기도문

1부 예배가 끝난 후, 성찬 순서에 포함되었던 '여성들의 주기도문'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여성들의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이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시선으로 번역되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여성의 시선과 경험으로 주기도문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감리교지도력개발원 장근지님이 초안을 작성하였고, 2021년 여성주의 연합예배 공동체가 함께 수정하여 최종본을 작성하였다. 다음 페이지의 '여성들의 주기도문'의 전문이다.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인 데에는 깊은 뜻이 있다. 이 기도문을 통해 여성들이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 '돌려주기', 허락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여성들에게 '원한-주기',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 등의 '주기(empowering)'의 역동적 실천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 우리들의 이야기 나눔

2부 '우리들의 이야기 나눔' 시간에는 다양한 사연이 소개되었다. 잃어버린 양식에 대한 이야기, 찾고 싶은 양식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된 사연이 주를 이루었는데, 노동 환경에서의 성차별, 우울, 차별 없는 예배 공동체에 대한 소망 등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진행자들은 각 사연에 대해 위로해주기, 대신 화내주기, 기도문과 여성 시편 읽어주기, 책 선물해주기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아픔으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바랐다. 많은 사람들이 사연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남겨주었고, 이를 통해 비록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연 중 한 노랫말이 생각한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여성들, 모든 약자들을 위한 마음이었다. 한국YWCA의 모든 분들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프지 말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2부의 마지막 인사말은 이렇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서로가 있기에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서로 기독교연회 찬양팀의 특송을 초대했다. 우리는 함께 '손 잡고 함께 가세'를 부르며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쳤다.



## 느리지만, 함께 가는 예배

이번 예배에 함께했던 분들은 다른 예배와 사뭇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올해 여성주의 연합예배는 느리지만, 함께 가는 예배였기 때문이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이 있었다. 그 누구도 예배의 자리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는, 준비 단체들의 굳은 의지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

청어 중심의 예배와 행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번 예배는 너무 느리고, 호흡이 자주 끊기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양식을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서로의 양식을 지켜주며 천천히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함'이라는 선물이 되었다.

생각보다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에 많은 지출이 필요했는데, 말에 숨을 불어넣는 '말숨헌금'으로 함께 예배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있었다. 예배를 함께 준비한 단체들의 마음과 손길을 통해, 또 다양한 손길로 예배를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그 누구도 뒤로 하지 않는(No one behind) 예수 공동체를 경험했다.

우리의 이 경험이 각자의 단체, 한국 교회, 한국 사회로 확장되어 모두가 안전한 공동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여성들의 주기-도문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당신의 뜻에 우리의 삶이 기억되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날 당신의 은총이 깃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욕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  
죄 지은 자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알아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힘 있는 자의 넘어짐을 작은 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여성을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 속에서 우리를 속히 구하여 주십시오.

차별 없는 나라와 주변으로부터의 권세, 평화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 여성들의 주기-도문

여성들의 주기-도문은 2021년 여성주의 연합예배 공동체에서 여성의 시선과 경험을 반영하여 주기도문을 재해석한 기도문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며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 시선으로 번역된 있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본래 뜻과 다르게 왜곡되게 해석된 몇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했다. 모든 여성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는 아니지만 억눌린 자, 약자, 작은 자는 '여성의 얼굴'을 띠고 있기에, 여성의 경험과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새롭게 살펴보는 일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기도문이 여성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주기(empowering)의 마음을 담았다.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 '돌려-주기',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는 영역에서 여성에게 '권한-주기',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 등과 같은 여성주의적 행동과 실천을 기대해 본다.

### 2021 첫 월례아침기도회



2021년 첫 월례아침기도회가 6월 5일(토) 오전 9시30분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영등포 신도교회 김효진 목사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청년여, 의심하라'란 주제로 설교했으며, 송소연, 서다미, 박민지 청년이 예배 순서를 담당하였다.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인도YWCA를 위한 묵상과 기도로 마무리 되었다. 월례기도회는 100주년을 준비하는 한국YWCA 기도운동의 일환으로 2022년 4월까지 매월 연합회 실행위원들과 신청한 회원YWCA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KOREA YWCA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회원Y 창립관련 기록물 아카이빙 관리교육



연합회 아카이브팀에서는 회원Y가 보관하고 있는 창립관련 기록물들의 DB 구축을 통해 보존력을 강화하고 YWCA아카이브에서 공유하여 한국YWCA 기록저장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Y 창립관련기록물 아카이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회원Y 실무활동가들을 대상으로 4월 28일(수) 오후 2시-5시까지 온라인으로 기록물 관리교육을 진행하였다. 30개 회원Y에서 38명의 실무활동가들이 참여하였고 인사말(한국YWCA연합회 유성희 사무총장), 회원Y 창립관련기록물 아카이빙 지원사업 소개(연합회 아카이브팀 윤수정 PM), 기록물 관리 교육과 목록화 실습(아카이브팀 안대진 대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 교육 이후 회원Y에서는 직접 DB 구축할 대상 기록물 선별, 목록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가들이 참여하였고 인사말(한국YWCA연합회 유성희 사무총장), 회원Y 창립관련기록물 아카이빙 지원사업 소개(연합회 아카이브팀 윤수정 PM), 기록물 관리 교육과 목록화 실습(아카이브팀 안대진 대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 교육 이후 회원Y에서는 직접 DB 구축할 대상 기록물 선별, 목록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 전수식, 국무총리표창 수상



(사)한국YWCA연합회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주최로 진행되는 '2020년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에서 그간의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의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전수식이 6월 4일(금) 오후 3시, 서울기록정보센터에서 진행되었다. 1922년 창립 이후 수많은 기록물들의 보존과 공유를 위해 연합회는 자체적인 DB와 디지털 자료실 구축, 외부 저장소 확보에 이어 2020년 'YWCA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이번 수상은 디지털 파일로의 전환이 어려웠던 시대에 YWCA의 역사 기록물들을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여 현재까지 물려주신 선배 활동가들의 애씀에 대한 자그마한 선물이 되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YWCA 기록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사회와의 공유를 통한 YWCA 목적과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우리 후배들도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 회원Y 재구조화 지원 자문단 위촉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는 5월 7일(금) 회원YWCA 재구조화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공익법인의 세무, 입법관련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김일석(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 류홍변(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위원장, 국무총리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제도개선분과 간사), 문미란(미국 변호사, 전 실행위원), 송호영(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법무부 자문



위원), 박훈(한국지방세학회 회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위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회원YWCA 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포식



5월 20일(목)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9개 교단 및 YWCA를 비롯한 5개 에큐메니컬 기관들이 모여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포식'을 진행하였다.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한국교회의 공동 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을 결단하였다. 원영희 회장은 선언을 넘어 정책과 삶의 양식의 변혁의 필요성을 나누며 한국YWCA 100주년 이후에도 지속할 탈핵기후생명운동의 결의를 공유하였다.

###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

5월 20일(목) 오후 1시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YWCA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성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진행된 것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의 실질적 이행 방안, 북미 대화 재개, 군사 훈련 중단, 대북제재의 해소와 한반도 비핵화 등을 협의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내외의 약 80여개 여성단체들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 2021 YWCA 신입이사 교육



<2021 YWCA 신입이사 교육>이 5월 26일(수)과 28일(금)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었다. 한국YWCA와 이사 역할 이해를 통해 각 회원Y와 지역에서 시민단체 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최한 이번 교육에는 양일에 걸쳐 총 28개Y 58명의 신입이사가 참석했다. <YWCA 목적과 정체성 이해>(원영희 연합회 회장), <YWCA 재구조화 이해>(구정혜, 박동순 연합회 국장), <YWCA 이사의 역할 그리고 나의 실천>(이은영 연합회 부회장)을 주제로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시대와 사회와 함께 가는 YWCA의 사명과 이사의 역할 이해를 통해 하나하나 나라를 향한 사명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자세한 내용은 P.36)

### 2021 YWCA 신입실무활동가 교육

<2021 YWCA 신입실무활동가 교육>이 'Y', 'W', 'C', 'A' 네 주제로 나뉘어 5월 13일(목), 20일(목), 6월 10일(목), 11일(금) 진행되었다. YWCA 활동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고 시작한 신입실무활동가들이 단체와 자신에 대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역할을 수행하며 주제교육을 통하여 관점과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YWCA 사명>(유성희 연합회 상임이사), <기독교여성시민단체 YWCA 정체성>(이혜련 연합회 부장),



<YWCA 활동가 정체성>(정서연 연합회 팀장), <주제별교육: 나의 관심, 운동이 될 수 있을까?>(천유란, 이수진, 이한빛, 김수진, 장세영 연합회 간사)의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YWCA 활동가의 비전을 나누며 정의, 평화, 생명, 청(소)년 운동의 관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P.34)

###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임시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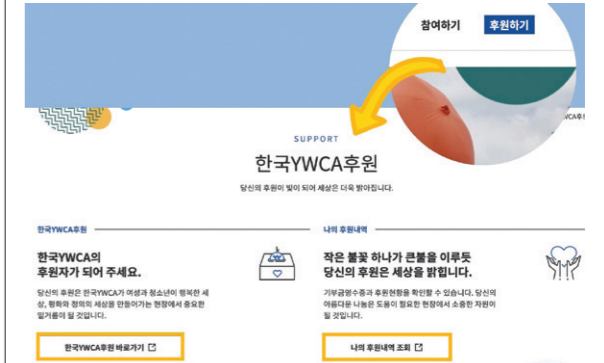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임시총회가 6월 5일(토) 오후 1시에 온라인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임시총회에는 11개 지역(대구Y, 대전Y, 마산Y, 목포Y, 서울Y, 수원Y, 안양Y, 울산Y, 인천Y, 전주Y, 청주Y)의 청년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대학·청년YWCA비상대책위원회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청년YWCA 지역회장회의에서 제안된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운영구조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한 정대표 17인의 만장일치로 4부지역대표를 부활하여 지역간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 2021년도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임원을 투표로 선출한 결과 전주YWCA의 서다미 회원이 2021년도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기획국장으로는 안양YWCA의 이예림 회원이, 소통국장으로는 대구YWCA의 김현진 회원이 선출되었다.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가 구성되어 재가동되는 만큼, 2022년 대선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임시총회가 6월 5일(토) 오후 1시에 온라인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임시총회에는 11개 지역(대구Y, 대전Y, 마산Y, 목포Y, 서울Y, 수원Y, 안양Y, 울산Y, 인천Y, 전주Y, 청주Y)의 청년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대학·청년YWCA비상대책위원회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청년YWCA 지역회장회의에서 제안된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운영구조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한 정대표 17인의 만장일치로 4부지역대표를 부활하여 지역간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 2021년도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임원을 투표로 선출한 결과 전주YWCA의 서다미 회원이 2021년도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기획국장으로는 안양YWCA의 이예림 회원이, 소통국장으로는 대구YWCA의 김현진 회원이 선출되었다.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가 구성되어 재가동되는 만큼, 2022년 대선

대응 청년 대선정책을 위한 연구 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 한국YWCA 후원 페이지 개편



연합회는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에 연동된 후원 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해 6월 8일(화) 오픈했다. 이번 개편으로 도너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누구나 쉽게 모금 및 캠페인 소식을 접하고 편하게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 친화적 요소들이 추가되었다.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에 연결된 모금/캠페인별 후원 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간편결제 등)가 가능하다. 또한 후원자가 직접 후원 내역 및 기부금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후원 방식 또한 온라인으로 확장하여, 모금 운동 및 캠페인 활동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SMR (소형모듈원전) 추진 한미원전수출협력 규탄 기자회견



6월 8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SMR 개발로 핵발전 지속을 꾀하고 있는 정부의 무모한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YWCA를 비롯한 탈핵시민행동 단체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SMR은 핵산업계와 일부 정계에서 수십 년간 개발과 안전성에 실패해온 산업으로, 안전성, 경제

성, 수용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핵발전의 변형이다. 이에 단체들은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원전수출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 신한올1호기 원전 운영 허가 반대 기자회견



제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린 6월 11일(금) 오전 10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YWCA를 비롯한 탈핵시민행동 소속 단체들은 신한올1호기 운영 허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R) 성능 검증과 항공기 충돌평가 등 중대 사고의 위험성을 지닌 경북 울진 신한올1호기의 성급한 운영 허가 논의를 규탄하기 위해 온라인 방청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논의는 다음 회차에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다.

### 2021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



2021년 6월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3일간 온라인(ZOOM)에서 진행된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에 7개 YWCA(대전, 부산, 서울, 세종, 춘천, 창원, 청주)에서 15명의 운영진이 참석했다. '우리는 키재는(키다리학교와 나의 재능 만나는) 순간이 행복하다'를 주제로 회원YWCA 키다리학교 활동나눔 사례(창원Y 박선민 진행), 나의 강점으로 키다리활동 지원하기(IMI 김대영 대표/YWCA 청소년활동자문위원 진행)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 이후 전개될 2021년 하반기 키다리학교 운영진 활동은

YWCA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 경험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2021 1차 Y-틴 중앙임원회, YWCA 온라인 플랫폼 개발 논의

전국 3천 5백여 명의 YWCA 청소년회원을 대표하는 Y-틴 전국협의체인 중앙임원회가 6월 12일(토) 저녁 9시 중에서 진행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4부지역협의회 운영 방향 모색 및 YWCA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위한 준비의 건을 논의하였다. 특별히 YWCA 청소년들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삭제를 촉구하는 Y-틴 성명을 발표할 것을 협의하고 초안을 작성했다. 한국YWCA 청소년들은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고민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청소년운동을 하는 시민으로서 앞으로도 환경, 역사, 차별 등의 문제를 주시하며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공익단체투명성지원센터 지원 회원YWCA 회계 및 세무교육



연합회는 6월 16일(수) 여성공인회계사회(회장 김재신) 공익단체투명성지원센터와 함께 회원YWCA 회계 및 세무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6개 회원YWCA(광명, 광양, 남양주, 부천, 제천, 하남)에서 10명이 참여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 이해와 공익법인의 세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일대일 멘토링의 시간을 가졌다. 공익단체투명성지원센터는 여성공인회계사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소규모 공익단체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족된 모임으로 이번 교육에는 11명의 공인회계사가 강사와 멘토링리더로 참여하였다.

### 2021년 YWCA 성평등 월간 토론회

5월부터 11월까지 연합회 및 회원YWCA의 이사, 실무활동가



를 대상으로 성평등 월간 토론회가 진행된다. 성평등 월간 토론회는 여러 성평등 이슈를 학습하고, 한국YWCA 대선 의제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5월에는 'Covid-19와 여성 이슈'를 주제로 제6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가자들이 세계 여성 이슈를 공유하였으며, 6월에는 '기후위기와 젠더'를 주제로 윤경호 이사(여성환경연대)가 강의를 진행하였고 관련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7월에는 '젠더 기반 성폭력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모금

(2021. 4. 15 ~ 2021. 5.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원영희, 조규혜, 이예림, 임진영, 구정혜, 오미화, 김지영	
교회	이화대학교교회, 안산글로벌미션교회	
회원YWCA	속초Y, 의정부Y, 포항Y, 성남Y, 파주Y, 인천Y, 부산Y, 양산Y, 원주Y, 남원Y, 세종Y, 동해Y	
기관 및 단체	필리핀Y	
	합계	12,779,034
	누계	44,051,454

###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21. 4. 1 ~ 2021. 5.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양영심 유성희	130,000
	누계	910,000

###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21. 4. 1 ~ 2021. 5.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2021. 4. 1 ~ 2021. 5. 31)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기현,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린,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나척더즈, 들람수렌,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윤희,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지영, 박진화, 박효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 빈, 유성희, 유 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주영, 이지윤, 이찬형, 이찬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천유란, 최수산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3,220,000
회원YWCA	양산YWCA, 창원YWCA, 청주YWCA	46,500
교회	황간임마누엘교회, 한양대학교교회, 한양대여성교회	1,460,000
개인	신세민, 이안후, 안정희, 임국미	245,000
	합계	4,971,500
	누계	9,812,030

## 경인·강원권역

### 강릉YWCA

이신애 부장

#### 회원운동 발대식



강릉YWCA 비전홀에서 5월 24일(월) 10시 30분 회원운동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오선숙 회원 위원장의 인도로 1부 예배를 드리고, 고문희 중경회장의 2부 특강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강은 '생각바꾸기'와 '감정계좌 관리'의 중요성을 강의하였다. 특히 회원 증모를 위한 나만의 전략 수립의 필요성(빌4:6)과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강 후 위원회별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유하여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2021년 강릉YWCA의 회원 목표는 1,200명이며 목표 달성 팀과 달성자에게는 상금과 상품이 주어진다.

### 동해YWCA

정미숙 팀장

#### 동해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동해YWCA는 4월 23일(금)에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캠페인, 홍보, 계도활동을 위해 3층 대강당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동해YW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동해시청 가족교육과 임정규 과장을 비롯하여 담당자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발대식에 이어 동해 가정폭력피해자보호회시설 새싹 김명희 원장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다.

### (사)서울YWCA

성지희 팀장

#### (사)서울YWCA 창립총회 개최



서울YWCA는 5월 27일(목) 온라인으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서울Y는 서울시 등록 단독 법인으로 전환,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YWCA 정체성과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의 목적에 충실한 구조로 재정비한다.

(사)서울YWCA는 '우리 사회 모든 여성과 함께 세상을 바꾼다'는 열린 비전을 바탕으로 여성과 운동성,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평등을 넘어 평화로,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속초YWCA

김다미 간사

#### 요양보호사 심화과정



속초YWCA 고령자인재은행 주관으로 만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다은요양보호사교육

원과 속초YWCA 4층 교육장에서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 '요양보호사 심화과정'을 실시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요양보호사로서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20명이 참여하여 수료하였다.

### 원주YWCA

김은섭 사무총장

#### '한여름밤의 꿈' 합창공연



원주YWCA어린이 합창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2021년 5월 15일(토) 저녁 7시 원주수변공연장에서 원주문화재단이 개최한 '한여름밤의 꿈' 합창공연을 하였다.

### (사)인천YWCA

서순아 팀장

#### (사)인천YWCA 창립총회 열어



창립 51주년을 맞은 인천 YWCA가 5월 11일(화) 창립총회를 거쳐 지역의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YWCA 재구조와 정책에 따라 지역의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오랜 숙의의 과정을 거쳐 지역 법인으로서의 첫발을 댄 것이다. 인천 YWCA는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재정비함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투명성과 책무성, 자치성을 가진 지역운동조직으로서의 정의, 평화, 생명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춘천YWCA

송영주 간사

####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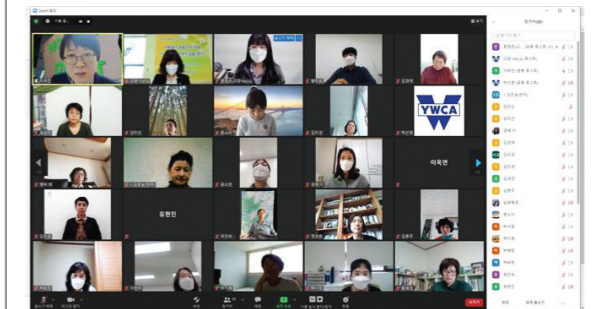
춘천YWCA는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생활쓰레기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벌였다.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은 5월 11일(화)에 춘천Y 임시사무실 앞에서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함께하여 진행하였다. 환경 보호 실천을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박스를 직접 사용해 보는 지구를 지키는 작은 행동을 함으로써 다시 한 번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경기권역

### 고양YWCA

남궁혜경 극장

#### 고양시 그린뉴딜 정책 젠더관점에서 모니터링



고양YWCA는 2021년 고양시 성평등기금사업지원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후위기가코로나19상황 속에서 지역 여성들과 함께 에코페미니즘 관점으로 고양시의 그린뉴딜 정책을 모니터링 한다. 또한 지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다루고,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운동

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어떻게 삶을 전환할 것인지를 모색한다. 향후 결과 보고회를 통해 고양시 그린뉴딜 정책을 젠더관점에서 모니터링해 대안을 제안하고 자원 순환과 관련한 정책 제안도 진행할 계획이다.

**광명YWCA** 박문경 총장  
**나의 슬기로운 생활정치학교**



광명YWCA의 '나의 슬기로운 생활정치학교'가 5월 26일(수)에 개강하였다. 정치는 제도적인 정치 영역에서 특정인들만 할 수 있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정치'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는 스스로가 결정하고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여 성평등한 정치 문화를 만들고 정치 참여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치 환경의 변화 구조 및 평등한 지방자치 실현, 여성의 참여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인으로서 여성 삶의 정치 과제 모색,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을 높이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나의 슬기로운 생활정치학교는 총 10강으로, 7월말에 종강할 예정이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신임 경비과정 개설, 교육생 배출**



남양주YWCA는 4월 26일(월)부터 5월 7일(금)까지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으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입경비교육 과정을 진행하였다. 경비 관련 업무의 이론과 실제, 승강기 관리 교육, 컴퓨터 활용의 이해 및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교육생들에게 교육 후 경비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사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며 교육생 전원 취업 성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20명이 참여하여, 1명이 조기 취업을 하였고 19명이 수료하여 현재 구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부천YWCA** 이현순 사무총장  
**청소년유해환경 감시·계도 활동**



부천YWCA는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부천시 원미동 일대 및 역곡역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계도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에는 부천시청 아동청소년과 팀장 및 담당자 2명과 부천YWCA 실무활동가 4명이 진행하였고 음식점, 편의점, 주점, 노래방 등 105개 업소를 방문하며 홍보물과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등을 배부하여 부착하도록 계도하였다.

또한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제작 중이며, 6월에는 후기청소년활동가 양성을 통한 사이버상담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인 도움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유해 문화와 신·변종 유해 업소의 증가, 유해 환경의 확산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내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될 '찍으면 보인다 QR코드 제작 및 배포사업'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사)수원YWCA** 강은진 간사  
**세상을 바꾸는 작은 움직임 '공정무역 골든벨'**  
수원YWCA는 매년 5월 둘째주 토요일로 정해진 '세계공정무



역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7일(금) 요양보호사 교육수강생 22명과 수원YWCA 회원 28명을 대상으로 공정 무역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공정 무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한 캠페인은 '공정무역 골든벨'이란 명칭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정무역의 의미, 공정무역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계 공정무역의 날이 언제인지, 공정무역의 기본 원칙과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 등에 대해 퀴즈를 푸는 형태로 진행했다. 퀴즈에 참여한 사람들 중 1~3위까지를 뽑아 공정무역 물품 꾸러미를 선물로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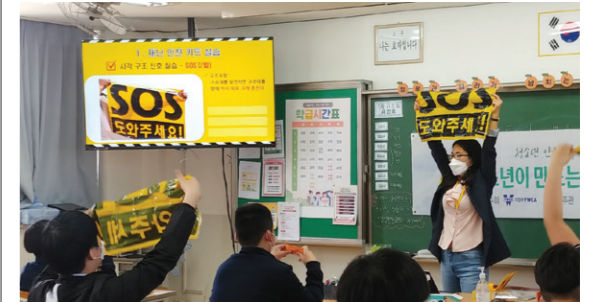
**(사)안양YWCA** 신재화 간사  
**회원대상 중점운동 교육 진행**



(사)안양YWCA는 5월 18일(화) 중점운동에 대한 이해와 기독 교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실무자 및 이사, 위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점운동 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의는 청파감리교회의 담임목사인 김기석 목사가 "기독시민 여성으로서의 생기를 불어넣는 YWCA 사명과 기독여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는데,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김기석 목사 특유의 유쾌함으로 풀어내어 큰 호평을 받았다. 개방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세대 차이를 타파하며, 현시대를 살아가는 기독여성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총체적으로 숙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청소년이 만드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교육**



의정부YWCA는 경기 북부 7개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4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50개 학급을 대상으로 총 250회, 청소년 6,885명에게 '청소년이 만드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월 4일 '학교안전 점검의 날'에 청소년이 직접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도록 교육한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안전 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에 관심을 갖고 학교 시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다.

**하남YWCA** 김상미 간사  
**덕풍천 걸으며 플로깅 환경캠페인 전개**



하남YWCA에서는 5월 5일(수) 하남YWCA 회관 앞에서 이사 위원들과 회원들이 회관 앞을 지나는 아이들에게 '애들아 놀자!' 어린이날 행사로 EM활성액 만들기 체험과 캘리그래피 체험을 진행했고 체험한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한 후 2명씩 짝으로 덕풍천을 걸으면서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환경캠페인을 펼쳤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버린 생활쓰레기가 환경오염에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플로깅 환경캠페인

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 사회 안에서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에 적극 동참하는 기회가 되었다.

## 충청권역

### 논산YWCA

조은숙 주임

#### 청소년 재난안전 '알아야 산다'



논산YWCA는 5월 10일(월)부터 27일(목)까지 총 8회에 걸쳐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와 웁쌀여자중학교 278명의 청소년들에게 재난안전 교육을 각각 실시하였다. 청소년에게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고민하면서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연 재난이라도 초동 대처나 시민 의식의 결여가 사회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재난 생존법과 방재 물품으로 직접 대응하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또한 국제구호NGO 재난안전복지사 김동훈 강사가 진행하는 국내 재난구호시스템과 생존배낭의 키트 토론은 올해 10월까지 계속된다. 청소년들은 주변 사물을 활용하여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필요들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 대전YWCA 아나바다 장터

2021년 5월 2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까지 대전YWCA 아나바다 장터가 유성Y카페에서 열렸다. 이번 아나바다 장터는 유성구민의 사전 접수를 받아 진행된 가족단위의 장터였으며, 대전YWCA의 다양한 환경 부스와 체험 활동을 통해 YWCA운동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대전YWCA 유성Y카페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



으며, 짧은 시간 진행하였지만 150여 명의 유성구민이 방문하였다. YWCA의 본격적인 중점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한 대전YWCA 유성Y카페는 앞으로도 유성구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으며, 유성구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세종YWCA

양유정 간사

#### Y-틴 플로깅, 달리면서 쓰레기 줍는다



세종YWCA 키다리학교와 Y-틴 회원 26명은 5월 29일(토) 조치원읍 인근에서 플로깅을 진행하였다. 플로깅은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이삭을 줍다)'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플로깅에 참여한 청소년 회원들은 "플로깅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좋아하니 좋았다. 생각보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아 놀랐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야겠다."라고 소감을 나눴다.

### 제천YWCA

김미경 팀장

#### 수질보전 인형극 "물은 소중해요"

제천YWCA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10개 유치원과 어



린이집 유·아동 4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질 보전 인형극 "물은 소중해요"를 공연한다. 이번 인형극은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수질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친근한 인형극과 신나는 음악과 율동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교육으로 흥미와 학습 효과를 배가 시키고 아동기부터 수질 보전 및 물 절약에 대한 관심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을 아껴 쓰는 작은 습관부터 지켜가기로 다짐했다.

### (사)청주YWCA

한기연 간사

#### 지역사회 사회복지사업 손수레 프로젝트



(사)청주YWCA는 수곡1동 주민센터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 다섯 분께 5월 28일(금)에 손수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폐지 줍는 할머니들께 손수레를 전달하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해드리고자 마련되었다. 손수레 프로젝트는 2021년 (사)청주YWCA가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해 새롭게 시작한 사회복지사업이며, 손수레에 광고판을 부착하여 마을상권회복과 폐지 수거인의 정기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 충주YWCA

이예림 간사

#### 평등한 가정! 행복한 가족! 힐링캠프



충주YWCA는 5월 29일(토) 체험학습장 충주사과한과에서 양성평등한 가족 문화를 정립하고 가족 간의 상호 작용과 유대 관계를 높이기 위해 힐링캠프 '평등한 가정! 행복한 가족! 힐링 캠프'를 진행했다. 사군자 기질 검사를 통하여 가난 서로의 기질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평등 인식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시간을 보냈다. 요리체험 활동으로 사과 유과와 옛강정을 만드는 시간을 가짐으로 양성이 평등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 간의 기질과 성격을 파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가정 안에서의 평등, 다양한 가족의 인정, 가사노동의 역할에 대한 성고정 관념을 해소하며 인식을 개선하도록 돕는 시간이 되었다.

## 경상권역

### 김해YWCA

배정숙 부장

#### "같이 이룬 30년, 함께 나눌 미래"

#### 김해YWCA 30주년 기념식

김해YWCA에서는 2021년 5월 27일(목) 오후 2시 김해YWCA 강당에서 3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1부는 모든민족교회 박원일 담임 목사의 '포도주가 될 때까지'라는 제목의 기념 예배로 진행되었고 2부는 공로상 및 장학금 수여식, Y틴 활동가 상 수여, 비전선포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하여 김해YWCA 자원활동가 및 실무 활동가들이 참가하는 기념식이었지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지역의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해YWCA에서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2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분성산 등산로 청소를 30 회차까지 진행하였고, 김해YWCA가 있는 해반천 상류 지역의 산책로 청소는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마산YWCA** 김민지 간사

**임항선 그린웨이 플로깅**



마산YWCA는 5월 25일(화) 회원들과 함께 임항선 그린웨이 인근을 돌며 플로깅을 하였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운동이다. 플로깅을 하며 어떤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회원들에게 다양한 환경 운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9월까지 월 1회 플로깅을 할 예정이다.

**부산YWCA** 최수정 간사

**나와 당신 그리고 환경을 위한 I BUS U 'Back to the 바다'**

부산YWCA는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지원을 받아 부산시내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매월 세계환경의 날에 맞춰 환경의 날 의미와 실천내용을 그린리워드에 담아 제공하고 있다.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부산시내버스 이용객 5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샴푸바를 나눠드리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사천YWCA** 송주은 간사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실시**



사천YWCA는 5월 2일 오후 2시 사천YWCA 사무실 앞에서 강미정 회장 외 9명의 회원이 지속가능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 다짐과 캠페인을 펼쳤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종이상자나 스티로폼 등 택배 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등의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 소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천YWCA는 올해 "나보다 오래 사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줄이고, 지구도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요"를 주제로 장날에 시민들에게 에코백을 전하며 일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률 높이기 실천 홍보를 진행한다.

**양산YWCA** 김유경 간사

**더미북(The me Book) 북살롱(Book salon) 나의 이야기 나의 책 만들기**

양산YWCA는 5월 11일(화) 더미북(The me Book) 마음의 품격



프로젝트 '북살롱(Book salon) 나의 이야기 나의 책 만들기' 과정을 개강하였다. 나의 책 만들기는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극복하고 심리적인 안정 지원을 제공하며, 일상에서 겪는 불평등, 여성차별, 편견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지역 여성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더미북(The me Book) 북살롱(Book salon) 사업은 여성이 사회적 주체로서 건전한 정신 건강을 되찾아 성평등한 문화적 가치를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제14회 세계인의날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진주YWCA는 5월 20일(목)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세계인의 날(Together Day)' 기념식에서 이주민 정착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진주YWCA는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작한 2011년부터 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지원인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이주민 경제적 역량 강화, 선주민과 이주민의 소통과 화합, 다문화작은도서관 '단비'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제한 외국인과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창원YWCA** 김하영 간사

**2021 상반기 이사지도력 훈련**



창원YWCA는 2021년 5월 18일(화)에 연합회 조은영 부회장을 초청하여 2021 상반기 이사지도력훈련을 진행하였다. 창원YWCA 이사 및 본부 실무자, 부속기관의 탐장 이상급 실무활동가들이 참석하여 창원YWCA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미래 비전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비전 정립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과 실천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고, 다양한 의견들을 도출하면서 젊은 세대 발굴과 지도력 이양(임파워먼트)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해졌다.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져 가는 YWCA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포항YWCA** 김민경 간사

**'이웃애(愛)힐링 더하기' 지역소외계층에 생필품 키트 나눔**



5월 20일(목) 포스코1% 나눔재단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생계 활동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외 계층(한부모, 조손, 홀몸 어르신, 장애인) 100 가정에 생필품 키트를 만들어 전달했다. 생필품키트는 상비약품, 방역위생물품, 생활필수품을 포함하여 16가지 품목으로 구성되었다. 생필품 키트가 어려운 시기

에 소외 계층 가정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앞으로도 지역 소외 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밑반찬 나눔을 통해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고 코로나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원에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 전라·제주권역

### 광주YWCA

서정현 부장

#### 바이소셜 광주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제로웨이스트 판매 오픈식



사회적경제활성화 광주네트워크(광주YWCA)는 5월27일(목) 이사실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바이소셜 광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지구를 살리는 바이소셜 가치선언식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치소비에 대해 바이소셜 제로웨이스트 물품 판매 오픈식을 진행하였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바이소셜'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윤리적 소비, 가치소비실천에 동참하는 캠페인 진행하여 사회적 경제 실천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 군산YWCA

황수미 간사

#### 군산YWCA 회원특강-아로마 캔들 만들기



군산YWCA는 5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군산Y 대강의실에서 군산Y 회원들과 함께 아로마 캔들 만들기 회원특강을 진행 하였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회원들을 직접 대면하며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원 제한과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 등을 잘 준수하며 오랜만에 회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아로마 캔들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 다음 회원특강 제빵 만들기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남원YWCA

박희정 간사

#### 탈핵기후생명운동 '플라스틱 NO' 캠페인 실시



남원YWCA는 5월 12일(수) 오후 3시에 유정희 회장 외 이사위원들과 회원들이 함께 '플라스틱 NO'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플라스틱 만드는 데 5초! 사용시간 5분! 썩는 데 500년! 걸린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실생활 속에 실천 가능한 행동으로 플라스틱 사용줄이기를 다짐했다. 이 외에 장바구니 사용하기, 과대포장 않기, 친환경 EM 제품 사용하기, 종이컵 줄이고 머그잔 사용하기 등 친환경적인 생활을 통해 다음 세대까지 푸른 대지를 자손손 물려주길 소망해 보는 시간이었다.

YWCA 99주년 탈핵기후생명선언문인 "1.5도씨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하고 기후 정의를 위한 전환을 당장 시작하라!"는 선언을 되새기며 다음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세대에서 기후 위기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야 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 Y-틴-대학YWCA 인준식

(사)목포YWCA는 5월 29일(토) 오전 10시 30분 본부 강당에서 대면과 실시간 줌온라인을 병행하여 10개 동아리 총 107명이



함께 참여하는 Y-틴-대학YWCA 인준식을 진행했다.

목적문 낭독을 시작으로 인준장 수여, 회원선서, 협의회 임원 소개와 한국YWCA연합회 회장상, 목포시장상, 국회의원상 표창, 14년 동안 Y-틴을 지도해 주신 교사께 드리는 목포YWCA 회장상 등 수상을 통해 감사하는 순서도 함께 가졌다. 뒤이어 올해 Y-틴 중점운동인 기후위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Y-틴과 대학YWCA가 지구를 지키는 실천방안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과 발표를 통해 '그린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인준식과 기후위기 캠페인을 통해 (사)목포YWCA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고 YWCA 청소년운동의 이해와 목적에 맞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결의하고 활동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 서귀포YWCA

김지희 간사

#### 2021 평화아카데미 서귀포지역 개강식 및 1강좌 개최



서귀포YWCA(회장 고맹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로 '2021 평화아카데미 서귀포지역' 개강식 및 1강좌를 6월 1일(화) 오후 2시 수강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YWCA회관에서 진행했다.

평화아카데미는 제주지역 평화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진행하며, 제주도민 대상으로 평화 의식 향상 및 평화 실천을 위해 사전신청을 받아 개최됐다. 첫 강연은 <평화&감수성> 유연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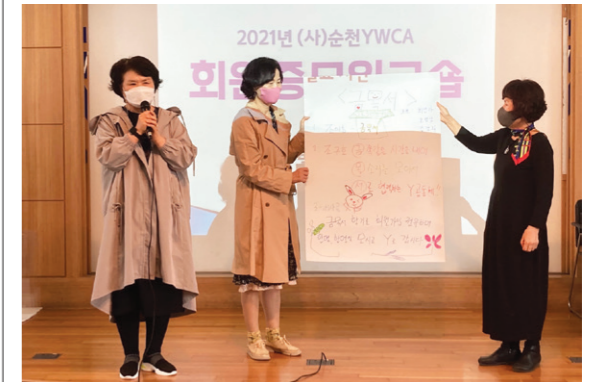
선이 주는 선물, 통일'을 주제로 통일부산하 비영리단체인 셋넷 학교 교장이며, 셋넷예술단 예술감독인 박상영 교장이 강연했다. 강의에서는 북한 이탈 이방인들을 위한 유연한 사고(평화감수성)가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했고, 가족과 지역 안에서 평화감수성으로 평등하고 따뜻하게 소통하는 평화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여한 수강생은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연결고리로 퍼즐을 맞추듯 맞춰가며 평화리더로 작은 실천부터 해 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카데미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신청자에 한해 참가 가능하다.

### (사)순천YWCA

신정옥 간사

#### 2021 (사)순천YWCA 회원증모워크숍



순천YWCA는 5월 10일(월) 회원증모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임원들을 중심으로 2021년 사단법인으로서는 순천YWCA는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각오와 실행 계획들을 나누면서 100년을 향한 목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코로나시대를 맞아 기존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대신하여 비대면으로 회원증모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글을 통한 SNS 회원가입시스템에 대한 도입과 더불어 회원 증모 개사대회를 통해 회원증모 운동에 열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회원증모워크숍을 시작으로 7월 30일까지 회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지역 내에서 전개할 계획이다.

### (사)여수YWCA

김예랑 간사

#### 창립 39주년 감사예배

여수YWCA는 5월 26일(수) 회관 4층에서 창립 39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



역 수칙을 지키며, 이사위원들과 시설장들이 참석하였다. 나들목네트워크지원센터 김형국 목사님의 영상을 통해 'BEYOND 100년, 어떻게 맞을까?' 말씀을 듣고 다가오는 여수YWCA의 40년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여수YWCA가 되길 기대한다.

**익산YWCA** 김다영 간사

**제기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산모·신생아관리사 양성**



익산YWCA 고령자인재은행은 5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50세 이상 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2021년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산모·신생아관리사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산모·신생아의 건강 관리와 예방, 직업 윤리, 산모·신생아 마사지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산모관리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고, 나의 손길로 산모와 아기에게 사랑과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YWCA 담당자는 "내 가족을 보살핀다는 마음으로 정성과 최선을 다해 산모와 아기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YWCA** 박성희 부장

**뉴트로 아나바다 운동 '잡자는 장바구니를 깨워라'**



전주YWCA는 생명·평화운동의 일환으로 뉴트로 아나바다 운동을 진행 중이다. 집에 사용하지 않는 장바구니 126점을 모아서 5월 25일(화) 지역 마트에 전달하는 '장바구니 리사이클 운동'을 전개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전주YWCA는 6월에 또 다른 뉴트로 아나바다 운동으로 '탄소금식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제주YWCA** 박솔기 간사

**미세플라스틱 정화활동 '제주가치줍줍'**



제주YWCA는 5월 22일(토) 이호해변에서 해변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정화활동 '제주가치줍줍' 캠페인과 정화 활동을 벌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환경체험교육 '제주가치줍줍' 프로그램은 지구의날인 4월 22일과 바다의날인 5월 31일에 환경 캠페인을 전개하며 환경오염과 탄소중립,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강의와 업사이클링 체험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간병비 부담없이 가족처럼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모습에

정말 **반**했습니다.

의료진 호출 벨은 꼭 필요시에만 누르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병문안은 정해진 시간을 지키며

우리가 **반!**하겠습니다.

병원비 부담도 덜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와 보호자의  
협조가 반입니다!**

전국의 간호간병 통합 병동문의는 **1577-1000**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입니다.  
- 참여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병문안 시간을 지켜주세요.  
평일 18:00~20:00  
주말/공휴일 10:00~12:00, 18:00~20:00

보건복지부